

제4교시

사회탐구 영역(세계사)

성명

수험 번호

빠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배점	문항번호	정답	배점
1	②	3	11	③	2
2	④	2	12	⑤	2
3	⑤	2	13	②	2
4	④	3	14	③	2
5	①	3	15	③	3
6	④	2	16	④	3
7	③	2	17	②	3
8	⑤	3	18	⑤	2
9	④	3	19	①	2
10	③	3	20	④	3

1. 밑줄 친 사상에 대하여 옳은 것은? [3점]

영국에서 출판된 책 ‘시민 정부론’은 시민들의 중앙 정부에 대한 저항권의 개념을 초기적으로 소개하는 등 이 책의 저자의 사상이 잘 드러난다. 저자는 당대의 혼란스러웠던 구시대의 새로운 시대로의 도약을 이 책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옹호하기도 하였다.

- ① 민주주의 이념에 큰 영향을 끼쳤다.
- ② 명예혁명을 옹호하고 미국 혁명을 자극했다.
- ③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전제한다.
- ④ ‘인민 주권의 원리’를 제시한다
- ⑤ 교회의 타락과 세속화를 비판하였다.

답: ② , 로크의 사회 계약설
 17~18세기의 사회 계약설에 관한 문제이다. ‘시민 정부론’은 로크의 저서이다. 로크는 명예혁명이 끝난 직후인 1690년에 ‘시민 정부론’을 집필하여 ‘저항권’의 개념을 설명하였고, 청교도 혁명(1640~1653), 명예혁명(1689)을 옹호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훗날 미국 혁명(1773~1783)과 프랑스 혁명을 자극하였다.

오답 선지

① 민주주의 이념에 큰 영향을 끼쳤다.
 : 근대적 민주주의 개념은 로크의 시대보다 훨씬 뒤에 등장하였다. ‘인민 주권의 원리’의 저자 루소가 민주주의 이념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

③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전제한다.
 :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전제한 인물은 홉스이다. 홉스는 ‘리바이어던’을 저술하였고(1651) 이를 통해 오히려 절대 왕정을 옹호하였다.

④ ‘인민 주권의 원리’를 제시한다
 : ‘인민 주권의 원리’는 루소에 의해 제시되는 개념이다.

⑤ 교회의 타락과 세속화를 비판하였다.
 : 이는 굉장히 넓은 맥락에서 여러 인물들을 짚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교회 대분열 이후 이를 비판한 영국의 위클리프와 보헤미아의 후스, 그리고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마르틴 루터와 장 칼뱅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그 누구라도 위 지시문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2. 밑줄 친 국가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이 국가의 왕은 고분고분해진 교황을 압박해 성전 기사단을 재판에 회부하여 대거 숙청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막대한 재산을 빼앗았다. 성전 기사단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 소집되었던 빈 공의회는 교황에게 로마로 귀환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교황 클레멘스 5세는 로마의 여러 사정과 왕의 압박을 고려해 로마 대신 아비뇽으로 갈 것을 결정하였다.

- ①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식민지를 보유하였다.
- ② 서프랑크가 기원이다.
- ③ 투르-푸아티에 전투가 일어난 곳이다.
- ④ **크림 전쟁에서 패배하였다.**
- ⑤ 플라시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답: ④, 프랑스

아비뇽 유수(1309~1377)에 관한 문제이다. 위의 지시문에서 ‘고분고분해진 교황’을 ‘압박’하여 결과적으로 ‘로마 대신 아비뇽’으로 갈 것을 결정하게 만든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교황이 약 70년동안 프랑스 왕의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되는 아비뇽 유수의 시작을 의미한다. 실제로 프랑스 왕국의 왕 필리프 4세에 의해 출동한 군사들이 로마의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를 습격하여 무력화하고, 새 교황 클레멘스 5세를 선출, 상당한 압력을 가하여 교황청을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이동시켰다. 따라서 국가는 프랑스로 보는 것이 옳다.

또한 흑해에서의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오스만 제국+ 영국+ 프랑스) vs 러시아의 구도로 진행된 크림 전쟁(1853~1856)에서는 러시아가 패배함으로써 러시아의 남하가 저지되는 결과를 낳았다.

오답 선지

- ①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식민지를 보유하였다.
: 프랑스는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프랑스령 ‘가이아나’를 식민지로 보유하였다. 흔히 ‘남아메리카=에스파냐, 포르투갈’로 보는 오해가 있는데,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말고도 영국령 ‘가이아나’와 네덜란드령 ‘가이아나(훗날 그 유명한 ‘수리남’으로 독립)’이 있으니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따라서 위 선지는 옳다.
- ② 서프랑크가 기원이다.
: 프랑크 왕국 말기에 베르딩 조약(843), 메르센 조약(870)으로 인해서 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로 왕국이 분열되었다. 서프랑크는 프랑스, 중프랑크는 이탈리아, 동프랑크는 독일의 기원이 되었다.
- ③ 투르-푸아티에 전투가 일어난 곳이다.
: 투르-푸아티에 전투(732)는 우마이야 왕조와 프랑크 왕국 메로베우스 왕조의 궁재였던 카롤루스 마르텔 사이에 일어났던 전투이다. 전투명이자 전투장소인 투르, 푸아티에는 현 프랑스 영토에 속한다.
- ⑤ 플라시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 플라시 전투(1757)에서 영국vs(프랑스+ 뱅골 연합군)의 구도로 전투가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영국이 승리하여 영국 주도의 인도에 대한 이권 침탈이 가속화되었다.

4 (세계사)

사회탐구 영역

3. (가)와 (나)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7년 전쟁 이후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던 (가)(은/는) 마침내 그들의 식민지에게도 각종 세금을 부과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부과된 세금 중에는 인지세와 차세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한 식민지에서 ‘대표 없는 곳에 과세는 없다’며 납세 거부 운동을 벌이자 마침내 (가)(은/는) 해당 식민지에서 차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을 폐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인들은 그들 식민지의 주요 항구 중 하나에서 정박 중이던 (나) 소속 배에 실려 있던 차 상자들을 바다에 던졌고 이 사건은 해당 식민지 독립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 ① (가) - 이웃 국가 내의 자국 영토로 인해 이웃 국가와 전쟁을 벌였다.
- ② (가) - 국제 연맹에 가입하였다.
- ③ (나) - (가)의 국왕에 의해 조직되었다.
- ④ (나) - 소속 용병들이 인도에서 항쟁을 일으켰다.
- ⑤ (나) - 매카트니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답: ⑤, 미국 혁명, 영국, 동인도회사

7년 전쟁(1756~1763)은 교육 과정 내에 자세히 설명되지는 않으나 아주 간단히 말하면 ‘술리지엔을 빼앗긴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가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제에게 복수하기 위해’ 벌어진 전쟁이다. 시기와 등장하는 이름들을 보면 알 수 있듯, 18세기 절대왕정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이 전쟁에 참전한 영국은 과도한 군비 지출로 인해 재정 운영이 어려워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 그들의 식민지에게 세금을 걷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식민지 중 북아메리카 식민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대표 없는 곳에 과세는 없다’는 말은 북아메리카 식민지의, 영국으로부터의 세금 부과에 대한 반응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가)는 영국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주요 항구 중 하나(=보스턴항)에서 정박 중이던 (나) 소속 배에 실려 있던 차 상자들을 바다에 던졌고’ 라는 말에서 보스턴 차 사건(1773)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나) 인데, 당연히 배들 또한 영국 소속일 것 같지만, 이는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이다. 영국의 18세기 기준의 대부분의 식민지 관련 일들은 ‘영국’이 아닌 ‘영국 동인도 회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나)는 ‘영국 동인도 회사’로 보아야 한다.

매카트니 사절단은 교육 과정 내에서 청 건륭제 대에 대외 무역 부분에서 공행 무역과 관련하여 잠깐 언급된다. 그러나 매카트니 사절단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왕실에서 외교적인 목적으로 파견하는 ‘사절’이었으므로 식민지 관련 업무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매카트니 사절단은 영국 동인도회사-(나)가 아닌 영국-(가)의 소속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여담으로 ‘차를 포함한 무역품을 식민지 혹은 이권을 침탈당하는 국가에서 피식민지 혹은 열강에 대항하기 위한 의미로서, 항구/도시에서 ‘폐기’하는 행위’는 생각보다 여러 사례가 있다. 교육 과정 내에서는 광저우의 입척서가 영국에 의해 유입되던 아편을 폐기한 사례가 있다.

(잘 알듯이 이는 1차 아편전쟁(1840~1842)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오답 선지

- ① (가) - 이웃 국가 내의 자국 영토로 인해 이웃 국가와 전쟁을 벌였다.

: 플랑드르 지방에 대한 지배권, 영국 왕의 프랑스 왕위 계승 논란을 바탕으로 일어난 백년 전쟁(1337~1453)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당시 프랑스 영토 내에는 영국령의 영토가 포함되어 있었고 (영국령 ‘아키텐’ 지방), 이에 비롯된 분쟁이 백년 전쟁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 ② (가) - 국제 연맹에 가입하였다.

: 국제 연맹이 이 선지에서 ‘League of Nations’를 의미하던 ‘United Nation, UN’을 의미하던, 영국은 전자에서는 ‘창립국’이자 ‘회원국’, 후자에서는 ‘상임이사국’을 맡았다.

- ③ (나) - (가)의 국왕에 의해 조직되었다.

: 영국 동인도회사는 튜더 왕조 엘리자베스 1세에 의해 1600년에 설립되었다. (엄밀히 말하면 튜더 왕조는 잉글랜드 왕조이다. 하지만 결국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가)-그레이트브리튼연합왕국이 출범하므로 엘리자베스 1세를 (가)의 국왕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 ④ (나) - 소속 용병들이 인도에서 항쟁을 일으켰다.

: 동인도회사 소속 용병들이 보급받은 탄약 포장지에 발린 ‘돼지기름, 소기름’과 관련한 논란이 그들로 하여금 ‘세포이의 항쟁(1857~1858)’을 촉발했다. ‘세포이의 항쟁’으로 인해, 무굴 제국의 황제가 폐위되고, 영국의 왕이 인도의 황제를 겸직하게 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인도 통치 개선법(1858)’이 제정되고, 무굴 제국(1526~1858)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4. 다음은 어느 인물 (가)의 ‘연설’문 중 일부이다.

(가)와 아래 ‘연설’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3점]

우리는 폭정에 대한 자유의 전쟁을 끝내야만 하고 혁명의 폭풍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중략)...평화 시의 인민정부의 기초가 미덕이라면, 혁명의 토대는 미덕과 공포입니다. 미덕을 결여한 공포는 치명적이고, 공포를 결여한 미덕은 무기력합니다. 공포는 단호하고 신속하고 무정한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공포는 미덕 그 자체에서 나옵니다...혁명정부는 폭군에 반하는 자유의 전제정입니다. ...(후략)...
-1794년 2월 5일-

- ① (가)를 비롯한 혁명 세력들은 그들의 왕을 처형하였다.
- ② (가)는 공안위원회를 설치하였다.
- ③ ‘연설’ 이전에 보통 선거제의 내용을 포함하는 헌법이 제정되었다.
- ④ 프랑스 왕국에서 행해진 연설이다.
- ⑤ (가)는 정치적 정적들로부터 처형당했다.

답: ④ , 로베스피에르, 공포정치, 프랑스 제1공화국, 국민공회

연설문의 시점을 확인해보면 ‘1794년 2월 5일’임을 알 수 있다. 연설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혁명’이라는 단어가 자주 보인다. ‘1794년’과 ‘혁명’의 조합은 ‘프랑스 혁명’을 떠올리게 한다. 다만 1794년 2월이므로 이는 국민공회(1792.9~1795.11) 시기임을 알 수 있다. 특히 1793년 9월 이후이므로 로베스피에르가 국민공회 의장을 역임하고 있을 때이고, 연설문에 ‘혁명의 토대는 미덕과 ‘공포’라고 언급되므로, 공포정치 시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는 로베스피에르이다. 로베스피에르는 이후 테르미도르 반동(1794.7), 즉 위의 연설 시점으로부터 약 5개월 뒤에 실각하여 처형당한다. 다만 위 연설이 시행된 시점인 1794년 2월 기준으로는 프랑스 왕국은 무너지고, 대신 프랑스 제1공화국이 건국되었을 때이다. 프랑스 제1공화국의 건국은 보통 국민공회 설치 시점(1792.9)과 동일하게 본다. 따라서 위 연설 시점이 프랑스 왕국의 존속 기간 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참고로 국민의회(1789.6~1791.9), 입법의회(1791.10~1792.9), 국민공회(1792.9~1795.11), 총재정부(1795.11~1799.11), 통령정부(1799.11~1804.12), 제1제정(1804.12~1815)을 꼭 외워두자.

오답 선지

- ① (가)를 비롯한 혁명 세력들은 그들의 왕을 처형하였다.
: 로베스피에르를 비롯한 혁명 세력들은 그들의 왕이었던 루이 16세를 1793년 1월에 처형했다.
- ② (가)는 공안위원회를 설치하였다.
: 로베스피에르는 루이 16세를 처형하고 1793년 4월에 공안위원회를 설치하였다.
- ③ ‘연설’ 이전에 보통 선거제의 내용을 포함하는 헌법이 제정되었다.
: 연설의 시점은 1794년 2월이고, 보통 선거제를 포함하는 헌법은 1793년 8월에 제정된 프랑스 제1공화국 헌법이다. 따라서 연설 이전에 헌법이 제정되기에, 이는 옳은 진술이다.
- ⑤ (가)는 정치적 정적들로부터 처형당했다.
: 로베스피에르는 그의 정치적 정적들이 일으킨 반동인 테르미도르 반동(1794.7)으로 실각하고, 그가 루이 16세의 처형을 집행했던 장소인 파리 콩코르 광장에서 똑같이 지롱드파에 의해 단두대로 처형당한다.

6 (세계사)

사회탐구 영역

5. 다음은 박물관에 전시되어있는 <그림>에 대한 설명이다.

㉠과 ㉡에 대하여 옳은 것은? [3점]

<그림>

이 그림은 프랑스의 화가 외젠 들라크루아가 제작했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다. 이 그림이 제작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거듭된 전쟁에서 패배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보수적 가치만을 추구하며 자유를 억압하였던 자국의 왕에 대해서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켰다. 시민들은 결국 그들의 왕조를 붕괴시켰다. 하지만 얼마 뒤 비슷한 역사인 ㉡혁명이 일어났다.

㉠ ㉠: 이웃 국가의 독립에 영향을 주었다.

㉡: 정통주의에 입각한 체제의 붕괴를 이끌었다.

㉢ ㉠: 대프랑스 동맹을 결집시켰다.

㉣: 마치니에게 영향을 주었다.

㉤ ㉠: 망명을 시도한 왕을 체포하였다.

㉥: 보통 선거제를 확립하였다.

㉦ ㉠: 자유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었다.

㉧: 지롱드파가 중심이 되었다.

㉨ ㉠: 입헌 군주제가 붕괴하였다.

㉩: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았다.

답: ㉠, 7월 혁명, 2월 혁명

19세기로 넘어오고 나서, 교육 과정 내에는 그 이전의 시기인 18세기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혁명’과 ‘분쟁’들이 등장한다.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이 엘바 섬으로의 유배로 인해 몰락한 이후 ‘부르봉 왕정복고’가 일어나서 왕정에 의해 통치되는 사회로 회귀되었다. (물론 중간에 나폴레옹이 엘바 섬을 탈출하여 파리로 되돌아오는 바람에 100일 정도 왕정복고 체제가 단절되기는 했지만 나폴레옹의 워털루 전투 패배 이후 다시 세인트헬레나섬으로 유배 당하면서 어찌저찌 복고 체제를 이어가게 된다.(왕정복고의 복고)) 물론 이때의 ‘프랑스 왕국’은 이전의 카페 왕조를 포함하는 ‘프랑스 왕국’과는 구별해야 한다.

그런데 왕정복고 이후, 샤를 10세는 여전히 보수적인 전제 정치를 바탕으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의회를 해산하는 등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위의 지시문에서 ‘보수적 가치만을 추구하며 자유를 억압하였던 자국의 왕(=샤를 10세)’로서 파악할 수 있다.

결국 이에 분노한 파리 시민들과 자유주의자들을 바탕으로 7월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은 ‘7월 혁명’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7월 혁명은 유럽의 초창기 자유주의 운동 모델로서, 교육 과정 내에서는, ‘벨기에의 독립’, ‘마치니가 청년 이탈리아당을 결성’한 것에 영향을 주었다고 언급된다. 7월 혁명 이후, 시민들은 루이 필리프를 국왕으로 추대하며 입헌 군주제의 성격을 갖는 7월 왕정 체제를 수립한다.

이후 약 18년이 지난 1848년, 역사는 되풀이되는 듯이 ‘2월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7월 왕정의 보수화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과 옆 나라 영국은 일찌감치 1832년에 1차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바탕으로 일어난 2월 혁명은 온 유럽으로 자유주의의 물결을 퍼뜨렸다. 나아가 메테르니히의 실각으로부터의 ‘빈 체제의 몰락’, ‘마치니의 이탈리아 통일 운동 전개’, ‘프랑크푸르트 국민 의회 개최’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은 2월 혁명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여담으로 ‘7월 혁명’을 포함하는 미디어 자료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이 문제에서 제시된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들라크루아)뿐만 아니라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 미제라블(Les Misérables)’도 포함된다. (2월 혁명은 그것을 주제로 하는 미디어 자료가 7월 혁명에 비해서는 많이 없다.)

오답 선지

㉢ ㉠: 대프랑스 동맹을 결집시켰다.

㉣: 마치니에게 영향을 주었다.

: 대프랑스 동맹은 그것의 결집과 관련하여 여러 맥락을 갖는다.

프랑스 혁명 당시, 프랑스의 이웃 국가들의 프랑스에 대한 그들의 자유주의의 확산을 경계한 것으로부터 결집된 대프랑스 동맹과 나폴레옹 전쟁 당시 결집된 대프랑스 동맹 등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두 맥락 모두 7월 혁명과는 관련이 없다.

㉤ ㉠: 망명을 시도한 왕을 체포하였다.

㉥: 보통 선거제를 확립하였다.

: ㉠은 맥락상 ‘바렌 사건(1791.6)’을 의미한다. 바렌 사건은 국민의회(1789.6~1791.9)시기의 일이므로 7월 혁명과는 관련이 없다. 7월 혁명과는 달리 훨씬 더 참정권의 요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2월 혁명의 결과 보통 선거제가 확립되었다. 따라서 ㉥은 적절하다.

㉦ ㉠: 자유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었다.

㉧: 지롱드파가 중심이 되었다.

: 7월 혁명과 2월 혁명 둘 다 자유주의자들이 일으킨 혁명이다. 따라서 ㉠은 옳다. 그러나 ㉡에 대해서 보면, 지롱드파는 2월 혁명과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지롱드파가 교과 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 시기에 자코뱅파와 대립했다는 것으로 제한된다.

㉨ ㉠: 입헌 군주제가 붕괴하였다.

㉩: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았다.

: 언뜻 보면 둘 다 맞는것 같아 보이지만, ㉠이 옳지 않은 말이다.

7월 혁명 이전의 부르봉 왕정복고 체제는 겉으로는 입헌 군주제를 지향했지만, 실상은 전제 군주제에 매우 가까웠다. 또한 7월 혁명 이후, 루이 필리프를 국왕으로 하는 ‘입헌 군주정’을 수립했다는 것을 바탕으로 ㉠은 적절하다고 보기 힘들다.

㉡은 맞는 말이다. 7월 혁명과 구분되는 2월 혁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선거권’의 확대를 비롯한 ‘참정권’의 요구이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당시 영국발 산업혁명이 유럽으로 확산되며,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대립, 그리고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이념의 확산이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성격이, 7월 혁명과는 달리 2월 혁명에는 대폭 가미되었다. 여담으로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초기적으로 공산주의를 체계화한 유명한 사상이 ‘카를 마르크스(Karl Marx)’가 그의 저서 ‘공산당 선언(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을 공저한 시기도 2월 혁명과 궤를 같이한다. 즉, 2월 혁명 당시 유럽은, 산업혁명으로부터 유래된 자본주의 이념과 그와 대립하던 사회주의 이념이 한창 성장하던 때이다.

6. 밑줄 친 그와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는 서쪽 소아시아에서 오스만에 대한 평정을 마무리하고 곧 바로 관심을 동쪽으로 돌렸다. 당시 동쪽 대륙에는 신생 제국이 들어서 있었으며, 그는 제국의 기틀이 사실은 그의 선조들인 몽골을 축출하고 건국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들을 살갑게 보지 않았다. 어느 날은 제국의 황제가 그로 하여금 어찌하여 제국에 조공을 바치지 않는냐고 사절을 보내어 질책하였다. 이에 그는 제국의 황제에게 ‘밀린 조공 가지고 직접 간다’며 제국의 황제에게 답문을 보내고는 동방 원정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그는 원정길 도중 병사하였다.

- ① 제국에서는 조공 무역과 감합 무역을 실시하였다.
- ② 그의 후손이 무굴 제국을 개창하였다.
- ③ 제국의 세금 제도는 인두세와 지세를 따로 징수한다.
- ④ 그가 건국한 국가의 국교는 시아파 이슬람이었다.
- ⑤ 제국은 동아프리카를 포함한 세계 각지에 함대를 파견하였다.

답: ④, 티무르 제국, 명, 일조편법

지시문을 읽어보면 ‘소아시아’, ‘오스만’ 등의 키워드로 미루어 보아, ‘그의 국가’는 아무래도 서아시아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일 것이다. 결정적으로 ‘그의 선조들인 몽골’이라는 언급이 있는데, 교육 과정 내에서, 서아시아를 기반으로 하며, 몽골을 자신들의 선조로 여기는 국가는 딱 하나, 티무르 왕조(1370~1507)이다. 따라서 그는 티무르를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오스만에 대한 평정을 마무리하고’는 티무르가 오스만 제국의 술탄, 바예지트 1세를 사로잡은 앙카라 전투(1402)를 의미한다.

이어서 동쪽의 신생 제국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제국은 몽골을 축출했다고 언급된다. 티무르 기준으로 동쪽이고, 당시 존속기간이 겹치면서, 동시에 비교적 신생 국가이고, 결정적으로 몽골을 축출하고 건국된 국가는, 딱 하나, 명나라(1368~1644)이다.

명나라는 1368년에 홍건적의 간부였던 주원장이 원을 북쪽으로 몰아내고 난징에서 건국하였다. 1368년은 1400년대 초반 전성기를 구가하던 티무르 기준으로도 신생이라 불릴만하다. 그러므로 제국은 명나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여담으로 당시 명나라의 황제는 교과에서 매우 비중있게 다루는 군주인 영락제(재위: 1402~1424)였다.

티무르 왕조의 국교가 시아파 이슬람이었냐고 하면 이는 분명 틀린 말이다. 공식 국교는 수니파 이슬람이었다. 사실 서아시아사, 인도사를 통틀어 등장하는 이슬람 국가들 중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국교로 수니파를 채택했다. 이슬람 세계를 볼 때 크게, 페르시아계, 아랍계, 튀르크계로 나눌 수 있는데, 시아파 이슬람은 100퍼센트는 아니지만, 대부분 페르시아계(이란계) 국가에서 주로 국교로 채택되었다. 교과 과정 내에서, 국교가 시아파 이슬람이었던 국가는 대표적으로 사파비 왕조(1501~1736)(이 국가는 애초에 국부인 이스마일 1세가 시아파 이슬람 종교단체 수장이었다.)가 있다. 이외에도 부와이 왕조(셀주크 튀르크 이전 아바스 왕조의 실권 왕조), 파티마 왕조(909~1171), 현대의 호메이니 주도의 이란 이슬람 공화국 등이 있다. 여담으로 시아파의 도움으로 건국된 아바스 왕조(750~1258)조차도 국교는 수니파 이슬람이었다. 따라서 티무르 왕조의 국교가 시아파 이슬람이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오답 선지

① 제국에서는 조공 무역과 감합 무역을 실시하였다.
: 명나라의 대외 무역 정책은 크게 조공 무역과 감합 무역이었다. 전자는 조선, 베트남 등과 행해진 것, 후자는 무로마치 막부와 행해진 것으로서 대표적이다.

② 그의 후손이 무굴 제국을 개창하였다.

: 바부르의 무굴 제국 개창을 의미하는 진술이다. 바부르는 티무르의 내손(7대손)이었다. 바부르는 티무르 제국 말엽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인도 아대륙으로 남하하였고, 델리에서 델리 술탄과 벌인 파니파트 전투(1526)에서 승리하고 무굴 제국(1526~1858)을 개창하였다.

무굴 제국의 황제 계보와 티무르의 관계를 간략히 살펴보면
티무르-(7대손)-바부르-후마юн-아크바르-자한기르-샤자한-아우랑제브..

참고로 아우랑제브의 아버지인 샤자한의 아내가 몃타즈 마할인데, 이 사람을 추모하기 위해 건설된 무덤이 그 유명한 ‘타지마할’이다.

③ 제국의 세금 제도는 인세와 지세를 따로 징수한다.

: 일조편법(一條鞭法)과 관련된 진술이다. 기존 명나라의 세금 제도는 잡세를 포함하여 자잘자잘한 종류의 여러 세금이 난재했다. 그래서 만력제(임진왜란 때 조선 원병을 실시한 그 황제) 9년(1581)에 장거정(만력제의 스승)의 주도 아래 기존의 세금종류를 인두세(정세)와 지세 두 가지로만 통합하다시피 하는 일조편법이 시행되었다.

교과에서는 훗날 청 강희제 대에 최초 시행되는 지정은제(地丁銀制)와 비교되며 등장하는 편인데, 지정은제는 일조편법과 달리 인두세(정세)를 지세에 합쳐서 부과되었다. 둘의 공통점은 교과 내에서는 둘 다 은으로 납부가 이루어졌다는 것 정도가 있다.

⑤ 제국은 동아프리카를 포함한 세계 각지에 함대를 파견하였다.

: 정화의 함대 파견(혹은 정화의 대원정)을 의미하는 진술이다.

정화의 함대 파견에 대해서는 그 기간과 구체적인 항해로, 파견 목적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다. 넓게 보면 정화의 함대는 명의 환관이었던 정화의의 지휘로, 영락제의 지원 아래, 티무르를 압박하기 위해 혹은 조공 무역 국가를 늘리기 위해, 1405년부터 넓게는 1433년까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정화의의 함대는 현 동남아시아의 시암(현 태국)과 말라카 해협(현 싱가포르 인근), 대월의 호이안(현 베트남 다낭 남쪽 도시), 자바 섬의 수라비야(현 인도네시아 제 3의 도시)를 거쳐서, 인도양으로 나간 후, 스리랑카 콜롬보, 인도의 코친과 캘리컷(코지코드, 바르톨로메우 디아스가 진출한 그 곳)을 거쳐서, 티무르의 호르무즈 해협(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아랍 에미리트 인근), 아덴만, 아라비아의 메카, 동아프리카 소말리아의 모가디슈, 말린디 등까지 진출했다는 기록이 있다.

(일부 극단적인 의견들에 따르면 정화의의 함대가 남미와 남극 대륙 사이를 통과하여 세계일주를 했다고까지 주장하기도 한다. 어케 진짜라면 마젤란(1519~1522 세계일주)보다도 약 100년 빠르게 세계일주를 했다는 것이 된다.)

여담으로 정화의의 함대 파견 이후, 명나라는 점차 해금 정책을 완화하게 된다.

7. 다음은 (가)운동에 반대했던 세력이 제정한 헌법의 일부이다.

(가)운동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 황제의 권한
제 1조: 황제는 중원 제국을 통치하고, 만세일계이며 영원히 군림한다.
제 3조: 법률을 흥정하고 집행하는 권력과 방안을 결의하는 권력을 갖는다. 의회에서 의결한 것이라도 황제의 명령으로 비준되고 반포되어야 비로소 실행할 수 있다.
제 8조: 계엄을 선포할 권한을 가진다. 긴급 상황 시, 조령(詔令)을 통해 신민(臣民)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 ① 공양학에 영향을 받았다.
② 메이지 유신을 본보기로 삼았다.
③ 남녀평등, 토지분배 등을 주요 개혁 내용으로 삼았다.
④ Kangwee와 량치차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⑤ 청일전쟁의 패배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이루어졌다.

답: ③, 변법자강운동, 흥정헌법대강

제시된 사료를 읽어보자. ‘황제’, ‘중원 제국’, ‘신민(臣民)’ 등의 키워드로 보면, 중국과 관련이 있다. 또한 ‘헌법’이 제정되었다는 맥락에서 이는, ‘흥정 헌법 대강’이라고 볼 수 있다.

흥정 헌법 대강은 1908년, 그러니까 광서신정 시기에 제정되었다. 이름과 달리, 이 시점에 광서제는 이미 꼭두각시 황제로 전락한 뒤 오래였다. 실권은 서태후와 위안스카이(袁世凱)가 휘두르고 있을 시점이다. 그런데, 왜 광서제가 결정적으로 꼭두각시 황제가 되었을까? 그 원인이 곧 이 문제의 주제이다.

기존 시점으로부터 약 10년 전인 1898년, 청나라의 상황을 간략히 바라보면, 1894년 청일전쟁의 패배, 양무운동(동치중흥)의 실패, 이홍장의 은퇴, 독일 제국의 키아우초우 점령 사건(1897) 등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점이다.

즉, 외부로부터의 혼란과 내부로부터의 혼란이 모두 중앙을 활발히 위협하던 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제였던 광서제는 위기를 타개하고자, 원래도 이모인 서태후에 의해 위협받는 본인의 입장을 한번 재고하고자 변법자강운동(1898)을 기획하고 실행하게 된다.

변법자강운동은 Kangwee(康有爲, 강유위), 량치차오(梁啓超, 양계초) 등을 위시로 하는 변법파를 중심으로 막 성인이 된 광서제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다. 기존의 자신들만의 오리엔탈리즘이었던 중체서용(中體西用)(잘 알겠지만 이는 양무운동의 기본 이념이었다.)을 버리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방한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과거제를 개혁하고, 신식 군대를 양성하고, 입헌 군주제를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변법자강운동은 그러나 무슬정변으로 인해, (구체적으로는 광서제가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려고 했던 위안스카이에 의해 배신당했다.) 막을 내리게 되고, 광서제 본인은 자금성에 감금당하면서 진짜로 꼭두각시 황제로 전락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변법자강운동과 그 이전의 양무운동(1861~1894)은 각각 일본의 개혁이념과 오리엔탈리즘(메이지 유신, 탈아입구(脫亞入歐) 등), 중국의 개혁이념과 오리엔탈리즘(중체서용(中體西用), 동도서기(東道西器))의 색채가 들어가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이를 바탕으로 보면 (가)운동은 ‘변법자강운동’, ‘이에 반대했던 세력’은 서태후와 위안스카이 등의 보수파로 볼 수 있다.

변법자강운동은 남녀평등과 토지분배를 개혁 내용으로 삼지 않았다. 이는 태평천국 운동(1851~1864)의 내용과 관련이 깊고 변법자강운동의 경우는 오히려 그 반대였다. 변법자강운동의 변법은 ‘기존 위계질서’를 수호하는 양상이 강했다. (변법자강운동의 기본이념인 공양학도 결국 유교이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 문물에는 급진적이었을지 몰라도,

기존 사회적 틀에 대해서는 보수적이었다. 그런 그들이, 당시로서 매우 진보적인 색채가 가미된 사회주의적 정책인 토지분배를 개혁 내용으로 삼았을리는 만무하다. 남녀평등에 대해서는 여성 교육의 신장을 위해 여학교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이 개혁안에 포함되기는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남녀평등을 주요 개혁 내용으로 삼았다고 보기에는 분명 무리가 있다. 따라서 ③번 선지는 옳지 않다.

(여담으로 사회주의적 색채를 정책안으로 삼았던 태평천국은, 중화 소비에트가 등장하기 전까지, 동아시아에서 왕망의 신(8~25)과 함께 가장 공산주의적 색채가 강한 나라였다. 또한 동아시아 역사상 궁예의 태봉(후고구려)와 더불어 단 둘뿐인 신정국가이기도 했다)

오답 선지

① 공양학에 영향을 받았다.

: 변법자강운동은 공양학에 영향을 받았다. 중국에서의 유교 변천사를 간략히 설명하면

훈고학→성리학/양명학→고증학→공양학

순인데, 현대 유학을 제외한 최종적인 유학의 형태인 공양학은

애초에 그 탄생과 연구 맥락을 살펴보면

청나라 말기에, 19세기에 열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

을 모색하기 위해 등장하였고, 양무운동이 실패한 이후, 변법자강운동의 사상적 기초가 된 것이다. 즉, 변법자강운동과 공양학은

매우 필연적인 관계를 이룬다.

② 메이지 유신을 본보기로 삼았다.

: 위에서도 자세히 설명했듯 변법자강운동은 기존의 중국의 것을 대체하고 일본의 것을 차용하는 경향이 매우 강했다. 오죽하면 메이지 유신에서 이름을 따와서, 변법자강운동의 다른 이름이 ‘변법 유신운동’이기도 했다. 일본과 같은 급진적인 개혁을 지향했던 만큼, 광서제는 심지어 이토 히로부미를 초빙하여 고문으로 삼으려 했다.

즉, 메이지 유신과 변법자강운동은 또한 뿔레야 뿔수 없는 사이이다.

④ Kangwee와 량치차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 매우 유명한 내용이다. 이홍장이 정계에서 물러난 이후, 광서제는 새로운 개혁을 위해 꾸준히 본인의 마음을 얻던 Kangwee와 량치차오를 필두로 변법자강운동을 주도하게 된다.

⑤ 청일전쟁의 패배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이루어졌다.

: 청나라에게 청일전쟁의 패배는 곧, 그들이 그들만의 방식과 사상을 바탕으로 야심차게 진행하였던 ‘양무운동’이 실패했음을 단적으로 알려주던 호시였다. 이런 상황에서, 광서제는 지난날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자신들을 복속시켰던 일본의 방식으로 따르게 된다. 즉, 청일전쟁의 패배가 청으로 하여금 오히려 일본을 본뜨게 만들었다. 따라서 변법자강운동이 청일전쟁의 패배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진술은 옳다.

8. 다음은 한 전쟁을 주제로 한 소설의 일부이다. 전쟁에 대하여 옳은 것은?

몇 백의 사람들이, 이제는 피범벅이 된 굳은 손발을 땡개친 시체가 되어, 능보에, 참호에, 이슬이 촉촉이 내린 꽃이 만발한 골짜기에, 흑해의 외딴 항구도시 세바스토폴의 장례 교회의 마룻바닥 위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어제와 그대로였다. 샛별은 사뿐 산의 산마루 위에서 반짝이기 시작했다. 깜박이던 별들은 서서히 하얘져 갔다.

-레프 톨스토이 作 ‘세바스토폴 이야기’-

- ① 러시아가 승리하였다.
- ② 미드하트 헌법 시행이 중지되는 결과를 낳았다.
- ③ 그리스가 독립하였다.
- ④ 데카브리스트의 봉기를 촉발했다.
- ⑤ **신성 동맹이 와해되었다.**

답: ⑤, 크림 전쟁

선지를 끝까지 보아야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선지가 다 맞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제시된 사료부터 읽어보면, ‘흑해의 외딴 항구도시 세바스토폴’이 언급된다. 작중 전쟁의 배경이 아무래도 세바스토폴을 포함한 흑해라고 볼 수 있다.

흑해와 관련한 전쟁은 교과 내에서 대표적으로 두 개 등장한다. 하나는 크림 전쟁(1853~1856)(이름인 ‘크림’이 흑해에 있는 크림반도에서 따온 것이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는 좀 유명해져서 아마 대부분 들어보았을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러시아-튀르크 전쟁(1877~1878)이다.

크림 전쟁은 러시아의 남하 야욕이 전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이는 현대에 들어서도 매우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합병(2014), 돈바스 전쟁(2020),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2022) 등이 그 예시이다.)

부동항을 얻기 위한 동기(이는 이전의 블라디보스토크 획득으로 일부 성공, 아이훈-카흐타 조약), 나아가 지중해 진출을 염두에 둔 흑해에서의 재해권 장악 동기 등이 전쟁을 촉발했다.

반면 러시아-튀르크 전쟁은 이와는 약간 다르다. 발칸 반도에서 범슬라브주의에 입각하여 오스만 치하의 슬라브인들을 독립시키고 그들을 러시아 체제로 편입시키기 위해 러시아가 발칸반도를 사주한 것이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 오스만 제국과 러시아의 영토를 보면 알겠지만, 그 둘 사이에 둘러싸인 흑해가,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거점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크림 전쟁에서 러시아는 패배하였고, 러시아-튀르크 전쟁에서는 승리하였다.

전쟁을 러시아-튀르크 전쟁이라고 가정하고 선지를 보면, 맞는 선지가 ①, ②번으로 두 개라서 모순이다.

반면 전쟁을 크림 전쟁이라고 보고, 신성 동맹에 대해서 파악해 보면, 신성 동맹(Holy Alliance)은 1815년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의 보수적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결성된 국제 동맹이고, 특히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랑스가 주축이었다. 그런데, 크림 전쟁에서 프랑스는 영국, 사르데냐와 함께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같은 신성 동맹 국가였던 러시아와 싸웠고, 오스트리아는 중립을 지키면서 이를 방조했다. 결국, 크림 전쟁이 러시아의 패배로 끝나고 신성 동맹은 사실상 와해되었다. 따라서 ⑤번 선지가 옳다.

여담으로 이 사료의 작가인 레프 톨스토이(1828~1910)는 러시아 사람이고, 그의 저서인 ‘세바스토폴 이야기(1855)’는 크림 전쟁의 참상을 보이고자 저작되었다.

오답 선지

① 러시아가 승리하였다.

: 크림 전쟁에서는 러시아는 패배하였다.

② 미드하트 헌법 시행이 중지되는 결과를 낳았다.

: 미드하트 헌법은 오스만 제국에서 시행된 은혜 개혁

(탄지마트)(1839~1876)의 결과물 중 하나이다. 하지만 오스만 제국이 러시아-튀르크 전쟁에서 러시아에 패배하면서 미드하트 헌법의 중지를 포함한 오스만의 다수의 개혁안들이 백지화되었다.

③ 그리스가 독립하였다.

: 위 사료와는 상관이 없는 말이다. 그리스는 그리스 독립

전쟁(1821~1829)으로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이미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했다.

④ 데카브리스트의 봉기를 촉발했다.

: 이 선지 역시 위 사료와는 상관이 없다. 데카브리스트 봉기는

1825년에 청년 장교들을 중심으로 전제 군주정의 폐지를 위해 러시아 제국에서 황제 니콜라이 1세에 대항하여 일어난 봉기이다. 이는 흑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9. 다음은 O/X 문제들과 그에 대한 응답을 기록한 것이다.

㉠~㉣에 대하여 옳은 것은? [3점]

문제	응답
아메리카 문명 중 새끼줄 매듭인 키푸를 사용한 문명은 잉카 문명이다.	X
가마쿠라 막부 때 몽골의 일본 원정이 시행되었다.	㉠
㉡	O
아시리아는 신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하였다.	O
㉣	X

(단, 정답이면 1점, 오답이면 0점으로 채점한다.) <총점: ㉣ 점>

- ① ㉠이 'O' 이고 ㉣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국교는 조로아스터교이다.'라면 ㉣은 4가 될 수 있다.
 ② ㉠이 'X' 이고 ㉡이 '십자군 전쟁의 영향으로 베네치아 지중해 무역이 성장하였다.'라면 ㉣은 4가 될 수 있다.
 ③ ㉠, ㉡, ㉣을 고려한 가능한 ㉣의 값 중 최댓값과 최솟값의 합은 6이다.
 ④ ㉣이 4일 때, ㉡이 '마테오 리치는 서광계와 함께 <천주실의>를 번역하였다.'가 될 수 없다.
 ⑤ ㉣이 1일 때, ㉠과 ㉣은 각각 'X'와 '당나라 시기에 참파벌의 도입으로 1년 2작이 시행되었다.'가 될 수 있다.

답: ④

세계사 시험지로서는 보기 힘든 퍼즐형 문제이다. 진술 하나씩 차근차근 진위를 가려 보자.

우선 문제 5개 중 ㉠~㉣와 상관없이 옳거나 그른 응답을 해서 점수를 확정할 문제를 확인해보자.

첫 번째 문제인 “아메리카 문명 중 새끼줄 매듭인 키푸를 사용한 문명은 잉카 문명이다.”을 보면, 이는 맞는 말이다. 15세기 중엽 안데스 고원에서 발흥한 잉카 문명은 쿠스코를 수도로 삼고 마추픽추 유적을 건설하는 등 발전하다가 에스파냐의 피사로에 의해 파괴되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의 응답이 O가 아닌 X이므로 이 문제에서는 점수 0점을 얻는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인 “아시리아는 신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하였다.”를 보면, 이 역시 옳은 진술이다. 아시리아는 기원전 7세기경 고바빌로니아, 이스라엘 등을 정복하며 서아시아의 상당 부분을 통일했고, 기원전 7세기 말엽, 신바빌로니아, 메디아 등에게 공격당하며 쇠퇴하였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응답이 O이므로, 이 문제에서는 점수 1점을 얻는다.

이어서 선지를 보자.

선지 판단

- ① ㉠이 'O' 이고 ㉣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국교는 조로아스터교이다.'라면 ㉣은 4가 될 수 있다.
 : 몽골의 일본 원정은 두 차례, 1274년과 1281년에 실시되었다. 이 때 일본의 막부는 가마쿠라 막부(1185~1333)였다. 따라서 ㉠이 'O'가 된다면 해당 문제에서 1점을 획득한다.
 이어서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국교는 조로아스터교이다.'을 보면 이 역시 옳은 진술이다. 조로아스터교는 이전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BC550~BC330)에서 신봉되었지만 국교로는 채택되지 못하다가, 훗날 사산 왕조 페르시아(224~651) 대에 이르러 국교로

채택되었다. 그런데 ㉣의 응답이 X이므로 이 문제에서는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받은 점수를 모두 더하면, 2, 4번째 문제에서 1점, 1, 5번째 문제에서 0점을 획득했으므로 남은 3번째 문제의 점수 획득 여부와는 상관 없이, 총점(㉣)은 4점보다는 작다. 따라서 틀린 선지이다.

- ② ㉠이 'X' 이고 ㉡이 '십자군 전쟁의 영향으로 베네치아 지중해 무역이 성장하였다.'라면 ㉣은 4가 될 수 있다.
 : ㉠이 'X' 이면, 우선 2번째 문제에서는 0점을 획득하고, 이미 1번째와 4번째에서 각각 0점, 1점을 획득하였으므로 지금까지의 점수는 1점이다. 사실 이 정보만으로도, 총점(㉣)이 아무리 커봐야 3점이라는 것을 간단히 알 수 있다.(5문제 중 틀린 문제가 이미 2문제 이므로) '십자군 전쟁의 영향으로 베네치아 지중해 무역이 성장하였다.'이 진술은 전혀 상관없는 두 개를 엮은 것처럼 보이지만 맞는 말이다.

- ③ ㉠, ㉡, ㉣을 고려한 가능한 ㉣의 값 중 최댓값과 최솟값의 합은 6이다.

: 총점의 최대와 최소를 따져보자. ㉠, ㉡, ㉣을 고려하기 이전에 이미 점수 1점을 획득한 문제는 4번째 문제가 있고, 그에 반해 점수를 획득하지 못함이 확정된 문제는 1번 문제가 있다. 즉 총점의 최댓값은 총 5점 중 이미 점수 획득이 불가능함이 확정된 1번 문제를 제외한 4점, 총 5점 중 최솟값은 이미 점수 획득이 확정된 4번 문제만을 반영한 1점이다. 따라서 총점 ㉣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합은 $4+1=5$ 이다. 즉, 틀린 선지이다.

- ④ ㉣이 4일 때, ㉡이 '마테오 리치는 서광계와 함께 <천주실의>를 번역하였다.'가 될 수 없다.

: 이번에는 총점을 4점으로 사전 지정하였다. 그리고 이어지는 진술인 '마테오 리치는 서광계와 함께 <천주실의>를 번역하였다.'을 살펴보면 이는 틀린 진술이다. <천주실의>는 명나라에서 활동하던 예수회 소속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독자적으로 저작한 저서이다. 그가 서광계와 함께 번역한 책은 <기하원본>이다. 이 진술이 ㉡에 들어가게 되면 3번째 문제에서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점수를 획득하지 못함이 확정되는 문제가, 1, 3 번이므로 총점의 가능한 최댓값이 3점이 된다. 따라서 총점이 4점이 되기 위해 ㉡에 이 진술이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선지는 옳은 선지이다.

- ⑤ ㉣이 1일 때, ㉠과 ㉣은 각각 'X'와 '당나라 시기에 참파벌의 도입으로 1년 2작이 시행되었다.'가 될 수 있다.

: 총점(㉣)이 1이 되려면.. 이미 점수를 획득한 4번째 문제를 제외한 모든 문제에서 점수를 얻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 옳은 진술인 2번째 문제에 대한 응답이 X가 되어야 하고, ㉣에는 옳은 진술을 하는 설명이 들어가야 한다. 그때 그 설명으로 제시된 '당나라 시기에 참파벌의 도입으로 1년 2작이 시행되었다.'를 보면 이는 틀린 설명이다. 참파벌의 도입이 이루어진 것은 교과에서 송나라 시대 때라고 설명한다. 나아가 참파벌의 도입으로 기존 2년 3작에서 1년 2작으로 농사의 효율이 올라간 것도 설명한다. 따라서 ⑤번 선지는 옳지 않다.

[10~11].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제부터 우리의 군주는, 진정한 칼리프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비록 동쪽과 서쪽의 이단들이 자신들을 칼리파라고 칭하지만, 이는 이치에 맞지 못합니다.’ 군주는 강조하며 말했다. 모로코를 무너뜨리고 나일강역을 장악하며, 나라가 새로이 건국된 이래, 하나의 하늘 아래 둘 이상의 칼리프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나): ‘오직 <성서>를 통해서야 우리는 비로소 진실된 신의 은총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교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성당의 재건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통적인 교리에 무척 어긋나는 행태를 보이며 자신들이 옳은 듯 내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에 반박하고자 합니다.’ 100년 전의 교회의 혼란이 마지막 혼란인 줄 알았지만, 새로운 혼란이 득세하자 대학 교수였던 이 사람은 마침내 행동으로 개혁의 의지를 보이기 시작했다.

10. (가)와 (나)시기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영국에서 모범의회가 설치되었다.
- ② 성 소피아 성당이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되었다.
- ③ 에스파냐의 주도로 포토시 은광이 개발되었다.
- ④ 송 태종이 5대10국 시대를 통일하였다.
- ⑤ 고르 왕조가 가즈니 왕조의 본거지를 차지하였다.

답: ③, 파티마 왕조, 마르틴 루터

먼저, 지시문을 읽고 (가)와 (나)의 시기가 언제쯤인지부터 확인해보자. (가)시기를 먼저 보면, ‘진정한 칼리프’라는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슬람 왕조임을 쉽게 알 수 있고, ‘진정한’이라는 수식어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아마 ‘칼리프’가 여러 개인 상황이고 그것의 정통성과 관련한 분쟁이 있는 듯 하다.

또한 ‘동쪽과 서쪽의 이단들’, ‘모로코를 무너뜨리고’, ‘나일강역을 장악’ 등을 보면, ‘새로이 건국된’ ‘나라’는 북아프리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언급들을 종합하면, (가)는 곧 ‘파티마 왕조(909~1171)’를 언급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들 기준으로 ‘서쪽의 이단’은 코르도바 중심의 후우마이야 왕조(756~1031)를, ‘동쪽의 이단’은 바그다드 중심의 아바스 왕조(750~1258)를 일컫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세 국가 모두 칼리프를 자칭하였으므로, 그들 사이가 살가웠을 리가 없다. 그래서 지시문에서도 ‘하늘아래 둘 이상의 칼리프’에 대해서 ‘이는 이치에 맞지 못합니다.’라고 언급한다. 즉, (가)의 시점은 파티마 왕조가 건국되고 나일강역을 장악한 10세기 초로 볼 수 있다. (참고로, 파티마 왕조가 건국된 것은 909년, 칼리프를 자칭한 것은 910년, 나일강역을 장악하며 카이로를 중심으로 삼은 것은 969년 이다.)

다음으로 (나)시기가 언제쯤인지 파악해보자. 지시문에서 각종 키워드를 뽑아보면, ‘<성서>’, ‘성당의 재건축’, ‘반박’ 등으로 미루어 보아, 교회의 혼란과 관련된 일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00년 전의 교회의 혼란’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나) 시점의 교회의 혼란이 처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거의 100년을 간격으로 하는 교회 관련 혼란이 무엇이 있던가 하고 보면, 유력한 것은, ‘서방교회 대분열(1377~1417)’과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발표(1517)’가 있다. 즉 밑줄 친 이 사람은 마르틴 루터이다. 참고로 서방교회 대분열은 아비뇽 유수 이후 교황이 로마와 아비뇽 두 곳에서 동시에 선출되어 교황의 권위를 결정적으로 실추하게 만든 현상이었고, 이는 콘스탄츠 공의회(1414~1418)때 두 교황 모두 폐위하고, 로마에서만 교황을 선출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해결되었다. (나)로 다시 돌아오면 (나) 시점은 대략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했던

1517년 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와 (나) 시기 사이는 대략 10세기 초~1517년 즈음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에스파냐 주도의 포토시 은광 개발은 1545년에 실시되었다. 현 볼리비아 지역, 그러니까 잉카 제국의 영토에 속했던 포토시 지역에 서 에스파냐 탐험가들이 대형 은광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것의 개발이 실시되었고, 1570년경에는 이를 말미암아 포토시는 신세계(아메리카 대륙) 최대 도시가 되었다.

어쨌든 1545년이라는 시점은 (나) 시점 기준으로도 이후의 시점이므로 (가)와 (나) 시기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③번 선지가 옳지 않다.

오답 선지

① 영국에서 모범의회가 설치되었다.

: 1215년 존 왕의 마그나 카르타(대헌장) 선포 이후, 영국의 의회 민주주의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래서 유럽 어느 나라보다 ‘의회’, 특히 그들의 의사결정이 적당한 ‘구속력’을 갖는 ‘의회’가 비교적 빠르게 등장하였다. 영국에서의 의회제의 발전 과정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13세기에 플랜테지넷 왕조 출신 에드워드 1세에 의해 ‘모범의회’가 설치되었고, 그의 손자인 에드워드 3세 때에는 양원제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이후 찰스 1세 대의 권리청원(1629), 잉글랜드 내전(청교도 혁명, 1640~1651) 이후 권리장전(1689) 등을 거치며 발전하였다. 따라서 이 선지에서 언급하는 모범의회 설치하는 13세기 경의 사건이므로 (가)와 (나)시기 사이에 있었던 일이 맞다.

② 성 소피아 성당이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되었다.

: 성 소피아 대성당은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시절 동로마 제국 콘스탄티노플에 건설된 대성당이다. 1453년 5월 29일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이 술탄 메흐메트 2세가 이끄는 오스만 제국군에게 점령당하며 제국이 멸망하자, 메흐메트 2세는 성 소피아 대성당을 이슬람 모스크로 개조하였다. 이 일이 일어난 시점이 콘스탄티노플 점령 직후이니, 1453년은 (가)와 (나) 시기 사이이므로 이 선지는 옳은 선지 이다.

④ 송 태종이 5대10국 시대를 통일하였다.

: 가장 큰 오해가 (송 건국)=(5대 10국 시대 통일) 이다. 그러나 두 사건은 일어난 구체적인 시점도, 행해진 주체도 다르다.

송나라는 송 태조 조광윤이, 960년에 카이펑을 수도로 하여 건국하였다. 하지만 이때는 아직 절도사들의 전국 시대였던 5대 10국 시대가 종결되지는 않았던 시점이다. 5대 10국 시대는 송 태종 조광의에 의해 979년 실질적으로 종결된다. 물론 교과 내에서는 5대10국 시대의 종결 시점을 960년과 970년을 혼재하기도 하지만 그 어느 쪽이라도 (가) 시기 이후이므로, 이 선지는 옳은 선지이다.

⑤ 고르 왕조가 가즈니 왕조의 본거지를 차지하였다.

: 가즈니 왕조와 고르(구르)왕조는 인도 아대륙에 이슬람 세력이 침투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한 번, 델리 술탄 왕조의 개창자인 아이바크가 고르 왕조의 복속된 출신이었다는 것으로 한 번, 총 두 번 교과에 등장한다. 이 선지는 그 중 첫 번째 등장과 관련한 내용이다. 가즈니 왕조(977~1168)는 아프가니스탄을 기반으로 북인도를 지배한 첫 번째 이슬람 왕조이다. 어쩌다가 이 왕조가 인도 아대륙을 지배하게 되었는지는 교과 외 내용이라서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굽타 왕조가 애프탈의 침입에 의해 멸망(550)한 이후 인도 아대륙에서는 통일 왕조인 바르다나 왕조(500~647)와 파르티하라 왕조(730~1036)이 등장하게 된다.(모두 교과 외 내용이다. 그런데 바르다나 왕조는, 인도 대륙 최후의 인도 교유의 통일 왕조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깊기에 사료 형식으로 현실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 이 파르티하라 왕조를 복속시킨 세력이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남하한 가즈니가 주도하던 가즈니 왕조였다.(카불에서 남하했다는 것이 티무르랑 비슷하다.). 어쨌든 그들은 11세기 경 북인도를 일시적으로 지배했고, 가즈니 왕조의 쇠퇴 이후, 이들이 지배하던 북인도를 고르 왕조가 일시적으로 지배하게 되니 이 시기가 대략 12세기 즈음이다. 이 선지에서 언급하는 시기가 12세기 경이므로 이는 (가)와 (나) 시기 사이라고 보기에 적절하다.

[10~11].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제부터 우리의 군주는, 진정한 칼리프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비록 동쪽과 서쪽의 이단들이 자신들을 칼리파라고 칭하지만, 이는 이치에 맞지 못합니다.’ 군주는 강조하며 말했다. 모로코를 무너뜨리고 나일강역을 장악하며 나라가 새로이 건국된 이래, 하나의 하늘 아래 둘 이상의 칼리프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나): ‘오직 <성서>를 통해서야 우리는 비로소 진실된 신의 은총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교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성당의 재건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통적인 교리에 무척 어긋나는 행태를 보이며 자신들이 옳은 듯 내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에 반박하고자 합니다.’ 100년 전의 교회의 혼란이 마지막 혼란인 줄 알았지만, 새로운 혼란이 득세하자 대학 교수였던 이 사람은 마침내 행동으로 개혁의 의지를 보이기 시작했다.

11. 밑줄 친 이 사람의 사상과 행동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 ① 결과적으로 예수회 창설에 영향을 주었다.
- ② 신성로마제국 제후들이 종교로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였다.
- ③ 예정설을 근거로 한다.
- ④ 바텐베르크를 중심으로 전파되었다.
- ⑤ 아우쿠스부르크 화의로 공인되었다.

답: ③,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

간단히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다. 예정설은 잘 알려져있다시피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또 다른 인물인 장 칼뱅(Jean Calvin)에 의해 핵심적으로 발전되었다. 칼뱅의 예정설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과 멸망을 미리 정해 놓았다.’,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핵심적으로 포함하는 이론이다. 이는 루터의 생각과는 대부분 유사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소폭 차이가 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논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세계사의 영역이 아니라 신학의 영역이 되므로 간단히 설명하면, ‘루터는 칼뱅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며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공통점을 사상 영역에서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저주할지 미리 하나님이 정해놨다.’ 와 같은 ‘이중 예정설’에 대해서는 칼뱅은 자신의 예정설에서 이를 강력히 주장했지만, 루터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뭐 어찌 되었건, 교과에서는 엄격히 ‘예정설’=‘칼뱅파’라고 설명하기에 루터의 사상에 대해 물어본 이 문제의 정답은 따라서 ③번이다.

오답 선지

① 결과적으로 예수회 창설에 영향을 주었다.

: 예수회는 루터의 종교 개혁을 포함한 종교 개혁의 결과로써 카톨릭 내부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냐시오 로올라의 주도로 1534년에 설립되었다. 따라서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함으로써 촉발되었던 종교 개혁이, 그것의 결과로써 예수회 창설에 영향을 주었다는 ①번 선지의 진술은 옳다고 볼 수 있다.

② 신성로마제국 제후들이 종교로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였다.

: 종교 개혁이 베스트팔렌 조약(1648)로써 어느 정도 끝맺음을 되고 나서, 신성로마제국 제후들에게는 종교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그 때 제후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종교적 종파에는 ‘루터파’를 비롯하여 기존의 카톨릭과 ‘칼뱅파’가 있었다.

④ 바텐베르크를 중심으로 전파되었다.

: 칼뱅이 스위스 제네바를 중심으로 개혁 운동을 펼친 것처럼 루터는 바텐베르크를 중심으로 개혁 운동을 전개하였다.

⑤ 아우쿠스부르크 화의로 공인되었다.

: 1555년에 이루어진 아우쿠스부르크 화의로써 신성로마제국 제후들에게 루터파가 공인되었다.

12. 세 국가 ㉠, ㉡, ㉢에 대하여 옳은 것은?

오늘 아침, 베를린 주재 ㉠국 대사는 ㉡정부에 금일 11시 까지 ㉡국가의 군대가 ㉢국에서 철수할 준비가 되었다는 소식이 없을 시, 양국 간의 전시 상태가 있을 것임을 전달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국 정부로부터 이 통첩에 대한 아무런 답신이 없었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는 ㉡국과의 전쟁에 돌입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9월 3일, 런던

- ㉠ ㉠ : 프랑 블록을 형성하였다.
- ㉡ ㉡ : 위 선전포고 이후 벌어진 전쟁에서 ㉠의 수도를 함락시켰다.
- ㉢ ㉠, ㉡ : 각각 3B 정책과 3C 정책을 시행하였다.
- ㉣ ㉠, ㉢ :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가입국이다.
- ㉤ ㉢ : 소련과 ㉢에 의해 분할 점령당했다.

답: ㉤, 제 2차 세계대전, 영국, 나치독일, 폴란드

지시문을 읽어보면, ㉠국 입장에서 보았을 때 ㉡국의 군대가 현재 ㉢국 내에 있는 상황이 썩 별로 내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별로 내키지 않는 것을 넘어 선전포고까지 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 ㉠국과 ㉡국은 전쟁에 돌입하게 된다.

이제 ㉠, ㉡, ㉢ 국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지시문에 ‘베를린 주재’라는 말로 보았을 때, 베를린이 ㉡국의 수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 독일일 것이다. 그리고 독일과 전쟁을 하는 국가인 ㉠을 보면, ㉠국의 수장은 ‘총리’임을 알 수 있다. 독일과 전쟁을 했던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가 떠오르는데, 지시문 끝자락에 ‘런던’이라는 말이 보이므로, ㉠은 영국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영국과 독일이 싸웠던 전쟁은 제 1차 세계대전, 제 2차 세계대전 중 하나이다. 그런데 시점을 보아하니, 독일이 이미 자국의 군대를 ㉢국으로 진격시킨 모양이고, 이에 대해서 영국이 선전포고한 모양이다. 그렇다면 ㉢국을 폴란드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모두 맞아떨어진다. 따라서 위 지시문의 전쟁은 제 2차 세계대전이다.

1939년 9월 1일에 나치 독일은 폴란드 회랑 지역(단치히 자유시, 구 동프로이센)의 반환을 구실로 폴란드를 침공한다. 이전 히틀러가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주덴텐란트)를 강제 병합하고 있을 때까지는 하더라도 영국과 프랑스는 직접 교전은 피한 채 가만히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치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자, 침공 이틀 뒤인 9월 3일 당일, 오전 11시에는 네빌 체임벌린(Neville Chamberlain) 영국 총리가, 오후 5시에는 에두아르드 달라디에(Édouard Daladier) 프랑스 국무총리가 독일에 대한 선전포고문을 발표하였다.

이후 독일은 북쪽으로는 덴마크와 노르웨이 방면으로, 서쪽으로는 베네룩스 3국과 프랑스 방면으로 진격하며 본격적으로 전쟁을 전개시켰고, 프랑스의 수도 파리를 6주만에 함락시켰다.

반면 동쪽에 있는 소련과는 직접적인 마찰을 피하고자, 나치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하기 이전 소련과는 미리 입을 맞추어 놓은 상태였다(독소 불가침조약). 독일이 폴란드 침공을 개시하고 약 2주 뒤인 9월 17일에 소련 역시 폴란드를 침공하며, 독일과 함께 폴란드를 분할 점령한다.(뎀날 분할당하는 폴란드) 하지만 이후 1941년 6월에 독일이 불가침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바르바로사 작전을 위시한 소련 침공을 진행하면서, 소련은 미국, 영국, 프랑스와 함께 연합국으로 참전하게 된다.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선지들 중 폴란드가 독일과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당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번 선지가 적절하다.

오답 선지

㉠ ㉠ : 프랑 블록을 형성하였다.

: 프랑 블록은 대공황 이후 프랑스가 형성한 봉쇄 경제권이다. ㉠은 영국이므로 옳지 않은 선지이다. 영국은 프랑 블록이 아닌 파운드 블록을 형성하였다.

㉡ ㉡ : 위 선전포고 이후 벌어진 전쟁에서 ㉠의 수도를 함락시켰다.

: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은 결과적으로 영국(㉠)의 수도인 런던을 함락시키지 못했다.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본토는 대부분 점령하였으나 영국 섬(그레이트브리튼 아일랜드)을 대상으로는 몇 차례의 항공전과 해상 전투만이 있었다. 이후 미국이 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유일하게 보전되어 있던 영국 섬을 발판삼아, 노르망디 상륙작전(1944)과 같은 유럽 대륙 본토에 대한 공세를 성공하면서 전쟁의 판도가 바뀌게 된다.

참고로 독일은 소련의 수도인 모스크바도 점령하지 못했다. 독일은 바르바로사 작전(1941.6) 이후 포위섬멸 전술로 소련군들을 차례로 격파해나가며 모스크바로 진격한다. 히틀러는 겨울이 오기 전에 모스크바를 점령하고 전쟁이 끝날 것을 예상했다. 그러나 소련군이 격렬히 버틴 끝에 겨울이 오기 전에 전쟁은 끝나지 못했고 이는 독일군으로 하여금 러시아의 혹독한 날씨로 인해 모스크바 점령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약 130년전의 어떤 프랑스인이 떠오른다.). 그들은 모스크바 바깥 40km 부근까지 진격했지만(모스크바 공방전), 결국 모스크바 점령에는 실패하고 퇴각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독일의 가장 큰 패착 원인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독일 입장에서 양면 전선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히틀러의 원래 목적은 동부전선을 빠르게 종결시키고 전선 하나(서부전선)만을 남기면서 영국을 점령하는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도저도 아니게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후 독일은 결국 역으로 소련에게 자국의 수도인 베를린을 함락당하고(베를린 공방전) 전쟁에서 또 한번 패배하게 된다.

㉢ ㉠, ㉡ : 각각 3B 정책과 3C 정책을 시행하였다.

: 3B 정책은 베를린(Berlin), 비잔티움(Byzantium), 바그다드(Baghdad)를 잇는 독일 제국의 대외 식민지 건설 정책이고, 3C 정책은 이와 유사하게 카이로(Cairo), 케이프타운(Cape Town), 캘커타(Calcutta)를 잇는 대영 제국의 대외 식민지 건설 정책이었다. ㉠이 영국이고, ㉡이 독일이니, 둘이 뒤바뀌어 서술되었고, 3B 정책은 나치독일이 아닌 독일 제국 시절 추진된 정책이므로 틀린 선지이다.

㉣ ㉠, ㉢ :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가입국이다.

: 바르샤바 조약기구(WTO)는 미국의 주도로 창설된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에 대항하기 위해 소련의 주도로 동유럽의 위성국들을 모아서 결성한 집단안보기구이다.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1955년에 폴란드의 수도인 바르샤바에서 결성되었다. 가입국에는 소련, 폴란드 인민공화국, 독일민주공화국(동독),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 인민공화국, 헝가리 인민공화국 등이 있었다(아시아의 공산주의 국가였던 중화인민공화국, 몽골인민공화국, 베트남 민주공화국, 북한 등은 옵저버 국가였다).

어쨌든, 폴란드(㉢)는 그렇다 치더라도, 영국(㉠)은 명백히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가입국이 아니었으므로 이는 틀린 선지이다.

13. 다음은 정권과 관련된 기록이다. 이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왜국과 통상하는 아국의 아무개에게 작년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풍신(豐臣)가문 내에서 큰 불화가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지난 아국과의 전쟁 이후 상호간 화합하지 못하고 급기야 서로를 살문(殺門)하기에 이르렀다. 상세히 고하자면, 내대신 내부가강(內府家康)이 석전치부경(石田治部卿)을 살해하였다고 한다. 급기야 그들은, 제들끼리 동과 서로 분열(分列)하여 전투를 벌였고, 승리한 자가 왜국 무신들 중 으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새로운 정권을 개창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선조실록, 136권, 34년-

- ① 슈인장을 발급하여 대외 무역을 통제하였다.
 ② 전국적인 토지 조사를 실시하고 무기를 몰수하였다.
 ③ ‘해체신서’를 편찬하였다.
 ④ 다이묘가 자신의 영주와 수도를 번갈아 생활하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하였다.
 ⑤ 성리학을 관학으로 중시하였다.

답: ②, 에도 막부, 도쿠가와 이에야스, (세키가하라 전투)

위 지시문이 ‘조선왕조실록’인 점, ‘풍신 가문 내에서 큰 불화’, ‘지난 아국(조선)과의 전쟁’ 등의 언급으로 보면, 위 지시문은 일본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지난 조선과의 전쟁(임진왜란) 이후의 일본을 다루고 있고, 임진왜란의 구체적인 시기를 잘 모르더라도, 세계사 교과 내에서 일본의 전국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킨 전쟁으로 임진왜란을 다루므로, 지시문 내 일본의 시점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후 정도의 시점으로 파악할 수 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후, 일본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중심의 에도 막부가 들어서게 된다. 따라서 문제에서 제시하는 정권은 에도 막부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반면 ②번 선지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전국적인 토지 조사’, ‘무기 몰수’와 관련된 내용은 에도 막부보다는 오히려, 그 직전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실시한 정책 중 하나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선지는 ②번이다.

여담으로 위 지시문에서 다루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풍신(豐臣)은 ‘도요토미’로(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한국식 한자음으로 읽으면 ‘풍신수길(豐臣秀吉)’이라고 부른다) 발음하고, 내부가강(內府家康)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석전치부경(石田治部卿)은 ‘이시다 미츠나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위 지시문의 ‘전투’는 1600년에 벌어진 세키가하라 전투를 의미한다. 세키가하라 전투는 세계사 교과에는 등장하지는 않지만, 에도 막부의 개창과 관련하여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도요토미 가문이 몰락하고, 권력의 공백을 차지하기 위해, 이시다 미츠나리를 중심으로 하는 서군과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중심으로 하는 동군이 일본의 세키가하라에서 격돌하였고, 이 전투에서 동군이 승리하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막부를 교토에서 에도(현 도쿄)로 옮기며 에도 막부를 개창하게 된다.

오답 선지

① 슈인장을 발급하여 대외 무역을 통제하였다.
 : 에도 막부 시기에는 슈인장(주인장, 朱印狀)을 발급하여 대외 무역을 통제하였다. 주로 쇼군 명의로 발급되었으며, 빨간 도장(朱印)이 찍혀 있다고 하여 주인장이라고 불렸다. 주인장이 있다는 것은 곧 막부의 인정을 받은 공식적인 대외적 사절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③ ‘해체신서’를 편찬하였다.
 : 해체신서(解體新書)는 에도 막부 시기에 일본에 수입되고 번역되어 편찬된 서양 해부학 서적이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일본 근대 의학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또한 해체신서의 편찬은 에도 막부의 근대적 사고와 서양 과학 수용의 상징을 의미한다.

④ 다이묘가 자신의 영주와 수도를 번갈아 생활하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하였다.
 : 산킨코타이(参勤交代) 제도를 의미한다. 이 제도는 에도 막부 시기, 지방 영주(다이묘)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중앙 집권화된 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의 다이묘들을 일정 기간 동안 수도인 에도에서 생활하게 만든 제도이다. 다이묘들로 하여금 자신의 번(藩, 영지)과 에도를 1년마다 돌아가며 생활하게 만들고 자신의 가족들은 강제로 에도에서 생활하게 만들으로써, 가족을 인질로 하여, 다이묘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했다.

⑤ 성리학을 관학으로 중시하였다.
 : 에도 막부는 의외로 정치 이념의 근간으로 성리학(주자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이는 옆 나라 조선에서의 성리학이 작용하는 양상과는 사뭇 달랐지만, 결국에는 사회 질서와 위계, 충효와 신분질서를 강조하는데 있어서 유사한 역할을 했다.

14. 다음은 어느 제국의 군주를 다루는 노래 가사중 일부이다.

㉠ 인물과 ㉡ 도시에 대하여 옳은 것은?

‘왕의 왕이시여, 황제를 도우소서
자비를, 자비를, 거룩하신 하느님,
㉠콘스탄티누스 드라가시스 팔레올로고스
하느님의 은총 받으신 로마인의 황제시여!
...(중략)...
보스포루스와 검은 화요일,
해는 진동하며, 땅은 탄식하는도다!
㉡도시가 함락됐다! 도시가 함락됐다!’

-‘당신은 번개처럼 오시리라’ 中-

- ① ㉠ : 밀라노 칙령으로 크리스티교를 공인하였다.
- ② ㉠ : 반달족, 고트족과 전쟁을 벌였다.
- ③ ㉡ : 그리스 정교회의 중심지이다.
- ④ ㉡ : 무스타파 케말이 신생 공화국의 수도로 정한 곳이다.
- ⑤ ㉡ : 2차 세계대전 당시 추축국에 의해 점령당했다.

답: ③, 콘스탄티노플, 비잔티움 제국 멸망

‘황제를 도우소서’, ‘콘스탄티누스 드라가시스 팔레올로고스’, ‘로마인의 황제’, ‘도시가 함락’ 등의 언급으로 볼 때, 사료로 제시된 노래는 로마와 관련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도시가 함락되는 상황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땅은 탄식’한다는 언급도 포함되어 있기에, 이는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을 의미하며, 로마의 도시가 함락된다는 상황으로 볼 때,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도시를 넘어서 국가 전체의 존망을 다루는 맥락으로 볼 때, 지시문의 배경은 1453년, 콘스탄티노플 함락 직전의 로마임을 알 수 있다. 즉, ㉠ 황제는 로마 최후의 황제(콘스탄티누스 11세, 이는 교과 외 내용이므로 몰라도 되지만, 최소 동명의 다른 로마 황제와 헷갈리면 안된다), ㉡ 도시는 콘스탄티노플임을 알 수 있다.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가 서방 교회의 중심지였다면, 콘스탄티노플은 동방 교회, 즉 그리스 정교회의 중심지였다. 이름에 ‘그리스’가 들어 가지만, 현재 기준으로 그리스와는 별 관련이 없다. 교과 내에서 성상 파괴령(726)을 설명할 때 잠깐 언급되는 5대 총대주교를 구체적으로 보면, 로마 총대주교,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 안티오키아 총대주교, 예루살렘 총대주교 이렇게 다섯 개를 의미한다. 이 중 로마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슬람 세계의 영향에 들어가지만, 남은 두 총대주교구는 성상파괴운동과 동서 대분열(1054) 이후 각각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회의 중심지가 된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콘스탄티노플’을 그리스 정교회의 중심지라고 진술하는 ③번 선지가 옳다고 볼 수 있다.

여담으로 위 지시문으로 제시된 노래는 ‘당신은 번개처럼 오시리라’(1988)로, 동로마 제국과 오스만 제국 사이에서 벌어졌던 콘스탄티노플 최후의 공방전(제 20차 콘스탄티노플 공방전)을 배경으로 한다.

술탄 메흐메트 2세가 이끄는 오스만 제국군이, 로마 최후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11세가 이끌던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함으로써, 2천년 로마는 하나의 도시(로마, 에리투리아-로물루스)에서 시작해 하나의 도시(콘스탄티노플)에서 끝나며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 노래는 공방전 당시, 오스만 제국 군대에 가장 먼저 앞으로 돌진했던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를 기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스포루스’는 콘스탄티노플을 가로지르는 ‘보스포루스 해협’을 ‘검은 화요일’은 로마가 멸망한 5월 29일이 ‘화요일’이었음을 의미한다.

오답 선지

① ㉠ : 밀라노 칙령으로 크리스티교를 공인하였다.

: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다. 설령 ㉠ 인물을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가정하였더라도, 이후에 드러나는 ‘도시가 함락’되는 상황과는 매칭되지 않는다(적어도 교과 내의 내용에서는 그렇다). 참고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정식 이름은 ‘플라비우스 발레리우스 아우렐리우스 콘스탄티누스’이다.

② ㉠ : 반달족, 고트족과 전쟁을 벌였다.

: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를 겨냥한 선지이다. 동로마 제국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의 여러 업적 중 ‘서로마 고토 회복’이 교과에서 언급되고, 함께 제시되는 지도를 보면, 황제가 ‘반달족, 고트족’과 전쟁을 벌였음을 알 수 있다(반달, 고트 전쟁, 535~554). 고트족, 반달족 모두 게르만족의 한 종파이다. 그들의 지난 게르만족의 대이동 이후 세력 분포를 보면, 이탈리아 반도는 동고트 왕국이, 북아프리카 영역은 반달 왕국이 점거하여 영향권을 형성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는 이들을 공격 및 점령하여 구 서로마 영토를 상당 부분 회복하였다.

④ ㉡ : 무스타파 케말이 신생 공화국의 수도로 정한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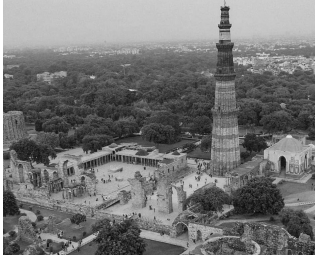
: 튀르키예 공화국(1923~)과 관련한 진술이다. 수도에 대한 배경지식이 뛰어나다면, 바로 옳지 않은 선지라는 것을 알 수도 있었겠지만(튀르키예의 최대도시는 이스탄불이지만 수도는 ‘앙카라’이다.),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1922년 오스만 제국의 멸망 이후, 1923년 무스타파 케말(아타튀르크)이 튀르키예 공화국을 수립할 때 수도를 ‘앙카라’로 하였음이 교과 내에 포함되므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선지이다.

㉡이 콘스탄티노플(현 이스탄불)임을 알았더라도 옳지 못하게 판단할 수 있는 선지였다.

⑤ ㉡ : 2차 세계대전 당시 추축국에 의해 점령당했다.

: 2차 세계대전 당시 추축국은 나치독일, 이탈리아 왕국, 일본 제국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식민지 및 괴뢰, 자치령 세력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탄불을 점령한 적이 없다. 애초에 튀르키예는 2차 세계대전 당시 1944년까지 중립국이었고, 중립국이었던 그들을 추축 세력이 굳이 공격할 필요도 없었고, 실제로도 공격하지 않았다. 튀르키예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어떤 세력에 속하였는지를 알아야 판단할 수 있던 선지였다.

15. 다음은 세계사 수업 중 인도 역사에 관한 수업 자료와 수업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3점]

<수업 자료>	
(가)	(나)
	

<수업 내용>	
선생님: 인도 역사의 왕조들은 여러 종교적 유적지를 건설하였습니다. (가)는 왕조의 군주가 전투의 참혹함을 깨닫고 상좌부 불교에 귀의하며 건설한 유적지입니다. 반면, (나) 또한 종교적인 색채가 짙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두 종교의 색채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기에 (가)와는 구별됩니다. 모두 (가)와 (나)에 대해서 발표해봅시다. 갑: (가)는 이란계 유목민이 건설한 국가의 유적은 아닙니다. 을: (가)와 달리 (나)는 이슬람교의 색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 (나)를 건설한 왕조는 피정복민에게 관용 정책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정: ㉠ 무: (나)는 (가)와 달리 외부에서 인도 대륙으로 유입된 왕조입니다. 선생님: 두 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옳게 발표하였습니다.	

- ① ‘갑’은 ‘병’과 달리 옳게 발표하였다.
 ② ‘을’과 ‘무’는 모두 옳게 발표하였다.
 ③ ㉠에는 ‘(가)를 건설한 왕조는 알렉산드로스의 침공을 받았다’가 들어갈 수 있다.
 ④ ㉠에는 ‘(나)를 건설한 왕조는 인도 대륙 내 최초의 이슬람 왕조이다.’가 들어갈 수 있다.
 ⑤ 밑줄 친 ‘두 학생’이 ‘한 학생’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무’가 발표를 고칠 필요는 없다.

답: ③, 산치 대탑, 쿠티브 미나르, 마우리아 왕조, 델리 술탄 왕조

‘선생님’의 말을 보면, (가)는 ‘왕조의 군주 전투의 참혹함을 깨닫고 상좌부 불교에 귀의하며 건설한 유적’이라는 언급이 있다. 이에 따르면 명확하게 (가)는 마우리아 왕조(BC320~BC185)의 아소카 대제가 건설한 ‘산치 대탑’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나) 역시 ‘서로 다른 두 종교의 색채가 동시에 포함’이라는 언급으로, 이슬람교와 힌두교가 융합된, 델리 술탄 왕조(1256~1526)의 개창자인 아이바크가 델리 점령을 기념하기 위해 건설한 ‘쿠티브 미나르’임을 알 수 있다.

이 문제 역시 위의 9번 문제와 비슷하게 세계사 교과에서는 보기 힘든 퍼즐형 문제이다. 선지 하나씩 진위를 판단해보자.

선지 판단

- ① ‘갑’은 ‘병’과 달리 옳게 발표하였다.

: ‘갑’의 발표를 보면, (가)는 마우리아 왕조와 관련되어 있고, 마우리아 왕조는 이란계 유목민이 건설한 국가는 아니다. 인도의 왕조 중 이란계 유목민이 건설한 가장 대표적인 왕조는 쿠산 왕조(30~375)이다. 따라서 ‘갑’은 옳게 발표하였다. 이어서 ‘병’의 발표를 보자. (나)는 델리 술탄 왕조와 관련되어 있고, 델리 술탄 왕조는 피정복민이 지즈야를 납부하면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주는 등 종교적으로는 관용 정책을 펼쳤다. 따라서 이를 부정하는 ‘병’의 발표는 옳지 않다. 즉, 이 선지는 옳다.

- ② ‘을’과 ‘무’는 모두 옳게 발표하였다.

: ‘을’의 발표를 보면, 산치 대탑(가)과 다르게 쿠티브 미나르(나)에는 이슬람교의 색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발표하고 있고 이는 사실에 부합한다. 따라서 ‘을’은 옳게 발표했다. ‘무’의 발표를 보면 (나)-델리 술탄 왕조와 (가)-마우리아 왕조의 근원을 비교하며, 델리 술탄 왕조는 인도 외부에서 유입되었다는 내용을 발표하는데 이는 옳은 내용이다. 교과 내에서 인도의 통일 왕조 중, 인도 내부적인 고유의 왕조는 마우리아 왕조(BC320~BC185), 쿠산 왕조(30~375), 굽타 왕조(330~550)(+바르다나 왕조) 뿐이다. 이 외의 델리 술탄 왕조(1256~1526)은 고르 왕조의 복속민 출신인 아이바크가 건국했으니(고르 왕조의 기원이 맘루크계이다), 무굴 제국(1526~1858)은 티무르의 후손인 바부르가 건국했으니, 모두 외부에서 인도 아대륙으로 유입된 왕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무’ 역시 ‘을’과 마찬가지로 옳게 발표하였다.

- ③ ㉠에는 ‘(가)를 건설한 왕조는 알렉산드로스의 침공을 받았다’가 들어갈 수 있다.

: 현재까지 선지를 판단한 내용으로 보면, 옳게 발표한 학생은 ‘갑’, ‘을’, ‘무’가 확인되고, 옳지 않게 발표한 학생은 ‘병’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선생님’의 마지막 말에 따르면, ‘병’ 이외에 옳지 않게 발표한 학생이 한명 더 있어야 하고, 이 한 명이 ‘정’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에는 옳지 않은 발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한편, ‘(가)(마우리아 왕조)를 건설한 왕조는 알렉산드로스의 침공을 받았다’는 진술은 옳은 진술이다. 마우리아 왕조의 국부인 찬드라굽타 마우리아는 알렉산드로스의 인더스강 유역 부근 침략 이후, 이에 자극을 받아 북인도를 인도 역사상 최초 통일하게 된다. 즉, 알렉산드로스가 마우리아 왕조로 하여금 인도 최초의 통일 왕조를 건설하게 만든 셈이다. 그런데 ㉠에는 옳지 않은 발표 내용이 들어가야 하므로, 이 같은 진술이 들어갈 수 없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④ ㉠에는 ‘(나)를 건설한 왕조는 인도 대륙 내 최초의 이슬람 왕조이다.’가 들어갈 수 있다.

: 교과 내에서 ‘이슬람 세력의 인도 진출’ 부분을 확인하면 간단히 ‘(나)를 건설한 왕조(델리 술탄 왕조)는 인도 대륙 최초의 이슬람 왕조이다.’가 거짓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델리 술탄 왕조 이전에 가즈니 왕조(10세기 경)와 고르 왕조(12세기)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 두 이슬람 왕조는 북인도의 펀자브 지방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델리 술탄 왕조를 인도 대륙 내에서의 최초의 이슬람 왕조라고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 같은 내용이 ㉠(틀린 내용이 들어가야 함)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이는 옳은 선지이다.

- ⑤ 밑줄 친 ‘두 학생’이 ‘한 학생’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무’가 발표를 고칠 필요는 없다.

: 확실히 정해진 것은, 틀린 발표를 한 학생은 ‘병’, ‘정’이다. 따라서 ‘두 학생’이 ‘한 학생’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이 둘 중 하명이 발표를 고쳐야 하지, 이미 옳은 발표를 한 ‘무’가 발표를 고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는 옳은 선지이다.

16. 다음은 불교와 관련된 일화 중 하나이다. 두 왕조 ㉠, ㉡와 밑줄 친 황제, 서역, 교역로 대하여 옳은 것은? [3점]

㉠의 황제는 어느 날 매우 기이한 꿈을 꾸었다. 그 꿈을 들여다보니 ‘황제는 밤중에 금빛 사람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 사람은 키가 크고 머리 위로는 빛이 비쳤다.’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어떤 이는 ‘서방의 ㉡에 신이 있으되 그 신의 이름은 불(佛)이요, 형태를 보아 하니 길이가 일장육척이요 온몸이 금색이더니, 이는 곧 황제께서 꾸신 꿈의 내용의 사람과 동일하다.’라 하였다. 이를 들은 황제는 필히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님을 알고 서역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이를 통해, 동방에 불교가 교역로를 통해 최초로 전래되었다.

- ① 황제가 사신을 파견한 서역은 대월지이다.
- ② ㉡에서는 ‘라마이냐’와 ‘샤쿠탄라’가 집필되었다.
- ③ 교역로는 황제에 의해 서역으로 파견된 인물에 의해 개척되었다.
- ④ ㉡은 ㉠이 계승한 왕조의 인물이 파견되었던 곳에 살던 사람들에 의해 건국되었다.
- ⑤ ㉡은 ㉠과 사산 왕조 페르시아 사이에서 중계 무역을 담당하였다.

답: ④, 불교 전래 과정, 후한, 쿠산 왕조, 비단길

불교가 중국으로 최초 전래되는 내용을 주제로 하는 지시문이다. 그런데 각 밑줄 친 요소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불교는 후한(25~220)대에, 쿠산 왕조(30~375)로부터 전래되었다. 위 지시문은 후한의 제2대 황제였던 명제(明帝)의 꿈 이야기를 포함하는데, 그 이야기는 황제가 꿈에서 부처의 형상을 보고 나서, 이에 깊은 인상을 받아 직접 서역으로 사신을 파견하여 불교를 중국에 들여왔다는 내용이다.

또한 불교는 ‘비단길(실크 로드)’을 통해 전래되었는데 이 비단길은 후한 이전의 왕조였던전한(BC202~AD8)의 황제였던 무제(武帝)가 장건(張騫)을 대월지에 파견하면서, 장건이 개척한 동서 교역로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정보를 종합하면 황제는 ‘후한의 어느 황제’(정확히 누구인지는 교과 외 내용이므로, 후한의 황제라는 것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게 선지를 설계했다), 서역은 ‘쿠산 왕조’, 교역로는 ‘비단길’을 의미한다.

한편, ‘쿠산 왕조’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면, 대월지(대강 중앙아시아-위구르 지역이라고 이해하자)에 살던 이란계 유목 민족들이 점차 인도아대륙으로 남하하여 건설한 왕조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란계 유목 민족이자 북인도-중앙아시아에 살던 인도인 계통의 쿠산족이, 박트리아(교과 내에서 ‘대월지’를 언급하며 같이 언급된다)를 점령하고 인도로 남하하여 건설한 왕조가 바로 쿠산 왕조라고 볼 수 있다.

④번 선지에서 ‘㉠이 계승한 왕조(전한)의 인물(장건)이 파견되었던 곳(=대월지)’에 살던 사람들(=이란계 유목민)이 건국한 국가(=쿠산 왕조)로서 ㉡(쿠산 왕조)을 진술하므로, ④번 선지가 옳은 선지이다.

오답 선지

① 황제가 사신을 파견한 서역은 대월지이다.

: 위 지시문의 맥락에서, 불교를 받아들이기 위해 황제가 사신을 파견한 서역은 대월지가 아닌 쿠산 왕조이므로 옳지 않은 선지이다.

② ㉡에서는 ‘라마이냐’와 ‘샤쿠탄라’가 집필되었다.

: ‘라마이냐’와 ‘샤쿠탄라’는 각각 굽타 왕조(330~550)시기에 제작된 산스크리트어 서사시와 희곡 이다. ㉡은 쿠산 왕조이므로 옳지 않은 선지이다.

③ 교역로는 황제에 의해 서역으로 파견된 인물에 의해 개척되었다.

: 오직 이 선지만 읽으면 맞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문제에서 제시된 지시문과 같이 읽으면 옳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우선 교역로는 앞서 언급했듯 불교가 전래된 ‘비단길’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비단길은 한 무제 시절 대월지에 파견된 장건에 의해 개척되었다. 황제가 ‘한 무제’도 아니거니와(불교가 중국에 정확히 어느 시기에 전래되었는지 안다면, 최소한 황제가 ‘한 무제’와 같은 전한 시기의 군주가 아닌 후한 시기의 군주임을 알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다.) 서역 또한 ‘대월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옳지 않은 선지이다.

⑤ ㉡은 ㉠과 사산 왕조 페르시아 사이에서 중계 무역을 담당하였다.

: ㉡-쿠산 왕조와 ㉠-후한, 그리고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존속 기간을 알아보면, 쿠산 왕조-> 30년~375년, 후한-> 25년~220년, 사산 왕조 페르시아-> 224년~651년이다. 즉, 후한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아닌, 파르티아(BC247~AD224)가 들어가야 더욱 자연스럽다.

굳이 이렇게 각 왕조의 존속 기간을 일일이 확인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각종 교과서와 EBS 연계교재에는 ‘후한-쿠산 왕조-파르티아-로마’의 무역 양상을 직접적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이 선지의 내용은 옳지 않다.

17. 다음은 신문 기사의 내용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하여 ㄱ~ㅍ 중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국가최고회의, 결국 공화국 해체 선언〉

지난 12월 26일, 국가최고회의는 ㉠의 창설과 함께 공화국이 더 이상 국가로서, 그리고 국제법의 주체로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는 선언을 발표하였다.

20년 전부터 시작된 동구권의 침체를 막고 이를 타개하고자 서기장은 각종 개혁, 개방정책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공화국 내에 잠재되어 있던 민족 문제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고, 분리독립을 원했던 ㉡리투아니아 연방이 독립선언을 시작하며, 각 공화국 구성국들의 독립 의지가 일어나고 공화국의 결속이 약화된 것이,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가최고회의의 해체 선언 이후, 그날 밤 크렘린 궁의 공화국의 국기는 하기되었다. 약 70년 역사의 우리 공화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이후 결성될 구체적인 ㉢의 가입국과 관련한 절차와 그 내용들은 후속 보도하겠다.

1991년 12월 27일, 모스크바



크렘린 궁에서 하기되는
공화국기
(자료제공: 미국 ABC 방송)

- ㄱ. ㉠은 러시아 연방이다.
 ㄴ. 공화국은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였다.
 ㄷ. 서기장은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를 시행하며 ㉠의 창설을 주도하였다.
 ㄹ. ㉡은 ㉠의 구성국이다.
 ㅁ. 공화국은 마셜 계획에 대응하여 코민포름을 조직하였다.

- ① ㄱ, ㄴ, ㅁ ② ㄴ, ㅁ ③ ㄴ,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ㄹ, ㅁ

답: ②, 소련의 해체, 독립 국가 연합(CIS), 미하일 고르바초프

뉴스 기사에서 ‘공화국의 해체’, ‘동구권의 침체’, ‘서기장’, ‘모스크바’ 등의 언급으로 볼 때, 공화국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소련)’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뉴스 기사의 주제는 ‘소련의 해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공화국의 해체와 함께 ㉠을 ‘창설’한다고 하였으므로 ㉠은 보리스 옐친의 주도하에 조직되었던 ‘독립 국가 연합(CIS)’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여담으로 이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 1989년부터 진행된 동유럽 혁명으로 각 동유럽 국가들 내에서 공산주의 정권이 축출되고 (체코슬로바키아-바츨라프 하벨-벨벳 혁명, 폴란드-레흐 바웬사-자유 노조 운동, 루마니아-차우세스쿠 처형-루마니아 민주화 운동 등), 독일이 통일(1990)된 이래, 소련의 내부 결속은 상태를 맞이 아니었다. 그러다가 발트 3국(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가 독립을 선언하고, 이러한 상황에 쉬쉬하던 고르바초프 서기장을 축출하려던 8월 쿠데타가 실패하면서, 소련은 실질적으로 더 이상 국가의 존속이 어렵게 되었다. 이후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주도의 소련 해체 선언(벨리베자 협정)을 말미암아 소련이 해체되었고, 그와 동시에 독립국가연합이 창설되었다.

이제 각 보기들의 진위를 가려 보자.

보기 진위 판단

- ㄱ. ㉠은 러시아 연방이다. (거짓)

: 바로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의 가입국’이라는 언급, ‘창설’이라는 어휘 선택이, ㉠이 ‘국가’라기 보다는 ‘국가들의 연합체’ 정도로 보기에 더 적절하게 만들기에, ㉠은 러시아 연방이라고 볼 수 없다.

㉠은 독립 국가 연합(CIS)이다.

- ㄴ. 공화국은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였다. (참)

: 앞서 보았듯 공화국은 ‘소련’을 의미하고, 소련은 1962년 당시에 미국의 영토 바로 남쪽에 위치한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여 ‘쿠바 미사일 위기’를 초래한 적이 있다.

이는 미-소 양국의 당시 핵 전력과 핵 투발 수단과 관련한 세력 불균형 상황을 보면 이해하기 쉽다. 단적으로 미국은 이미 900여개의 달하는 수소폭탄을 포함한 핵무기를, 미 본토에서 발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유럽 대륙 곳곳에 실전배치된 전략폭격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의 압도적인 물량을 바탕으로, 특히 다방면의 방법으로 소련을 직접타격할 수 있었던 반면, 소련은 당시 보유한 핵무기가 60여기에 지나지 못했고, 핵 투발 수단 또한 미국에 비해 매우 사거리가 짧은 등, 핵 전력의 모든 면에서 미국에 열세였다.

이런 상황에서 소련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짧은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로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미국과 가장 가까웠던 공산주의 국가인 쿠바에 자국의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게 되고, 이 정황이 ‘쿠바 미사일 위기’를 촉발하게 된다.

- ㄷ. 서기장은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를 시행하며 ㉠의 창설을 주도하였다. (거짓)

: 앞서 보았듯 서기장은 ‘미하일 고르바초프’를 의미한다.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침체되어가는 동구권의 경제를 재기시키기 위해 개혁, 개방 정책(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을 실시한다. 하지만 그가 직접 ㉠(독립 국가 연합)의 창설을 주도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고르바초프가 아닌 그의 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옐친이 주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 ㄹ. ㉡은 ㉠의 구성국이다. (거짓)

: ㉡(리투아니아 연방)이 ㉠(독립 국가 연합)의 구성국이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위 뉴스 기사의 전후 사정을 다시 파악하면 알 수 있다. 가장 먼저 분리 독립을 선언한 곳으로서 ㉡(리투아니아 연방)이 언급되고, 그만큼 ‘소련’으로부터 벗어나는 열망이 큰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그들이, 다시금 소련의 주도로 조직된 ㉠(독립 국가 연합)에 가입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실제로, 리투아니아를 포함한 발트 3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자국내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련에 의해 강제 병합되었고, 소련이 존속하는 동안에도 내부에서 가장 독립의 열기가 강한 나라들이었다. 오히려 그들은 소련이 해체되자마자, 구소련 출신 국가들 중 최초로 서방 중심의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에 가입했다.

- ㅁ. 공화국은 마셜 계획에 대응하여 코민포름을 조직하였다. (참)

: 소련은 2차 세계대전 전후, 유럽의 재건에 있어서 미국이 마셜 계획을 앞세우며 유럽내 미국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을 경계하여, 동유럽에 대해서 자국의 경제 원조 수단인 ‘코민포름’을 조직하였다.

18. 밑줄 친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도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곤궁하여 식민지배를 피하지 못했을지언정 그렇다고 정신적으로까지 복속되어야 하겠는가” 라자는 말했다. “우리의 힌두로부터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으리라고 나는 굳게 믿네”. 라자의 이 말들처럼 종교적인 성찰에서 비롯된 이 운동은 곧 사회 개혁을 유도하며 캘커타로부터 나라 전체의 근대화를 이끌었다.

- ① 람 모한 로이가 주도하였다.
- ② 우상 숭배의 배격을 주장했다.
- ③ 여성의 권리 신장을 주장하였다.
- ④ 카스트 제도에 반대하였다.
- ⑤ 무력을 통한 저항을 실행하였다.

답: ⑤,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 람 모한 로이

지시문에서 ‘힌두로부터의 개혁’, ‘종교적인 성찰에서 비롯된’, 그리고 결정적으로 ‘캘커타’, ‘식민지배를 피하지 못했을지언정’이라는 말들로 보아, 운동은 어떤 열강에 의해 식민지배를 받는 곳에서, 그리고 ‘힌두교’를 믿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단서들을 종합하면, 운동은 1828년, 벵골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임을 알 수 있다. 혹자는 ‘캘커타’라는 워딩에 집중하여, 이 운동이 캘커타와 관련된 다른 인도의 민족 운동인 ‘캘커타 대회’ 혹은 ‘인도 국민 회의’ 등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힌두교’로부터 거행된 민족 운동은 람 모한 로이가 주도했던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이 유일하기에, 따라서 운동을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은 ‘종교로부터의 개혁’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의 개혁을 기하였다(이 점은 태평천국 운동(1851~1864)와 유사하다). 구체적으로는 우상 숭배 반대, 유일신 강조, 베다 경전 회복, 여성 교육 장려, 카스트 제도 비판, 서양식 근대 교육 도입, 영어 교육과 과학적 사고의 신장 등을 그 내용으로 삼았다. 반면,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은 비폭력적이고 계몽적인 운동이었기에 무력 투쟁을 포함하는 폭력적인 성격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이 부분은 거의 한 세기 전의 세포이의 항쟁(1857~1859)이나 거의 한 세기 이후인 물렛법 제정에 대항하여 일어난 자와할랄 네루의 독립 투쟁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⑤번 선지는 옳지 않다.

오답 선지

- ① 람 모한 로이가 주도하였다.
: 맞는 진술이다. 람 모한 로이는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의 주역 중 주역 중 한명이다. 참고로 위 지시문에 등장하는 ‘라자’는 람 모한 로이의 정식 이름인 ‘라자 람 모한 로이(Raja Ram Mohan Roy)’에서 따왔다.
- ② 우상 숭배의 배격을 주장했다.
: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은 ‘종교로부터의 개혁’적인 성격도 강했지만, 동시에 ‘종교 자체의 개혁’과 관련된 성격도 강했다. 여기서 종교는 앞서 언급했듯 힌두교를 의미한다. 정통적으로 힌두교의 교리는 우상 숭배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장려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곧 이는 힌두교의 세속적인 부분으로 변질되어 종교 자체의 타락을 야기했고, 약 300년전 유럽에서 그랬던 것처럼, ‘기존의 교리보다 훨씬 엄격한 종교로의 귀의’를 외치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대상이 카톨릭이 아니라 힌두교인 상황,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고자,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은 전통적인 힌두교의 교리 중 세속적인 것(그들의 계몽 사상에 빚대어 보았을 때)을 비판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리고 그렇게 비판당하는 교리 중에는 ‘우상 숭배의 허용’도 명백히 포함되었고,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은 따라서 우상 숭배를 배격하였다. 이러한 맥락으로 보면,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은 ‘힌두교 내부’에서 출발했지만 ‘힌두교를 수호’하면서 동시에 ‘힌두교를 비판’했던, 종교적으로는 꽤 복잡한 개혁운동이었다.
- ③ 여성의 권리 신장을 주장하였다.
: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은 또한 여성의 권리 신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대표적으로 사티(Sati) 철폐 운동을 벌였는데, 사티(Sati)란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남편의 장례 때 함께 타 죽는 풍습을 의미한다.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은 이에 대해 철폐 운동을 벌이며 1829년에 영국 정부로부터 사티 금지령을 이끌어내는 등 여러 여성 인권 신장 관련 성과를 거두었다.
- ④ 카스트 제도에 반대하였다.
: 이 역시 위의 ②번 선지에 나오는 ‘우상 숭배’와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 사이의 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정통적인 힌두교 교리는 베다와 마누 법전 등으로 카스트 제도를 옹호한다. 하지만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은 이러한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분명히 비판적이고 거부하는 입장을 내보였고, 이는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의 기본 이념인 계몽주의로부터 유도되는 평등주의, 이성, 도덕 중심의 신앙을 강조한 것에 근거한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다.

19. 다음은 문명과 관련된 기록이다. 이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이 땅은 본디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문명이 건설되면서 ‘약속의 땅’, ‘레반트’ 등으로 불렸다. 그중 ‘약속의 땅’은 문명의 민족적,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이름이다. 우리에게 각종 이야기들로서 익숙한 ‘지혜의 왕’이 통치하던 땅도, 그리스교가 일컫는 ‘성지’도 모두 이 땅이다. 그러한 의미들 덕분에 이 땅은 역사적으로 여러 분쟁의 중심지였다. 교황이 직접 이 땅의 수호를 천명했던 중세부터 격한 내전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는 현대까지, 참으로 여러 의미를 복합적으로 지닌 땅이라고 볼 수 있다.

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상 무역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② 헤브라이인에 의해 건설되었다.

③ 현대의 ‘팔레스타인’ 지역이다.

④ 신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하였다.

⑤ 솔로몬왕 사후 이스라엘과 유대로 분열되었다.

답: ①, 헤브라이 문명,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나안’, ‘약속의 땅’, ‘지혜의 왕(=솔로몬)’ 등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지시문은 헤브라이 문명에 대해서 다룬다.

헤브라이 문명은 기원전 1500년 경에 헤브라이 인들이 가나안 지역에 건설한 문명이다. 그리고 가나안 지역은 현재의 팔레스타인 지역이다.

‘헤브라이 문명’과 함께 ‘히타이트’, ‘페니키아’가 ‘지중해 연안의 문명’으로 교과에서 소개된다. 하지만 그 이름과는 달리, 이 세 문명 중 적극적으로 지중해로 진출하여 해상 무역을 이끌었거나 식민지를 건설한 것은 오직 ‘페니키아’만 해당된다.

따라서 ‘헤브라이 문명’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상 무역을 활발히 전개하였다’는 ①번 선지의 진술은 옳지 않다.

오답 선지

② 헤브라이인에 의해 건설되었다.

: 이름부터가 ‘헤브라이(히브리) 문명’이다.

③ 현대의 ‘팔레스타인’ 지역이다.

: 가나안은 현대의 팔레스타인 지역이다.

④ 신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하였다.

: 헤브라이 문명은 신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하였다.

⑤ 솔로몬왕 사후 이스라엘과 유대로 분열되었다.

: 헤브라이 문명은 솔로몬왕 사후 이스라엘과 유대로 분열되었다.

20. 다음은 팩스(Pax)의 개념에 대한 설명과 그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다. ㉠~㉤ 에 대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팩스(Pax)란 라틴어로 ‘평화’를 뜻하는 단어이다. 하지만 보통 한 제국이나 국가, 세력의 라틴어식 수식어와 함께 사용되어 ‘한 국제 세력이 압도적인 힘으로 이룩한/한 세력이 주도하는 장기간의 질서/평화’라는 의미로 쓰인다. 가령 ‘팩스 아메리카나(미국)’는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주도하는 국제 질서’를 의미한다. 또한 수식어가 단일 국가나 제국이 아닌 연속적인 ‘세력’ 자체일 경우, 해당 ‘세력’에 속했던 각각의 국가들 모두가 곧, 해당 ‘팩스’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가령 ‘팩스 차이나(중국)’은 중국 내 어느 단일 왕조가 아닌, 진, 한, 수, 당 등 중국 세력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모든 왕조, 국가들이 ‘팩스 차이나’를 이끌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학생1: ‘팩스 로마나(로마)’는 곧 오현제 시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어.

학생2: 서아시아 지역에서 ‘팩스 페르시아나(페르시아)’는 ‘㉠팩스 이슬라미카(이슬람 제국만 포함, 오스만 제국 제외)’에 의해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

학생3: 그렇지만 ‘팩스 이슬라미카(이슬람 제국)’ 또한 ‘팩스 ㉡’에 의해 복속 당한적이 있어.

학생4: ‘팩스 오토마나(오스만 제국)’는 신성로마제국의 수도 중 ㉢한 곳을 성공적으로 포위했던 ㉣군주 시절에 최고조였다고 볼 수 있겠어.

학생5: ‘팩스 인디아(인도)’를 이끌었던 이슬람 왕조 중 가장 넓은 영토를 보유했던 국가는 ㉤이야.

- ① ㉠이 영향력을 행사했던 영역에는 유럽의 영토가 포함되었던 적이 있다.
- ② ㉡에 ‘몽골 제국’이 들어갈 수 있다.
- ③ ㉢은 메테르니히가 주도했던 체제의 이름과 같은 지명을 가지고 있다.
- ④ ㉤의 증조 할아버지는 수니파 이슬람 세계의 지배자로 군림하였다.
- ⑤ ㉤의 최대 영토를 확보했던 군주의 증조 할아버지가 ㉤의 군주일 때는, ㉤이 건국될 때의 수도와 다른 곳이 수도였다.

답: ④, 가족 계보 확인하기

전통적인 세계사 문항과는 다르게 사뭇 이색적인 형태의 문제이다. 교과 외부의 개념을 설명하며 교과 내부의 학습 요소들을 바탕으로 선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 문제의 출제 의도이다. 하나씩 선지를 판단해보자.

선지 판단

- ① ㉠이 영향력을 행사했던 영역에는 유럽의 영토가 포함되었던 적이 있다.

: ㉠은 ‘팩스 이슬라미카(이슬람 제국만 포함, 오스만 제국 제외)’이다. 즉 ㉠에는 정통 칼리프 왕조(630~660), 우마이야 왕조(661~750), 아바스 왕조(750~1258)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들 왕조의 역대 강역에 유럽의 영토가 포함되었던 적이 있다. 이를테면 이베리아 반도가 우마이야 왕조의 영토에 속했던 것이 하나의 예시이다.

- ② ㉡에 ‘몽골 제국’이 들어갈 수 있다.

: 위에서 언급된 ‘팩스 이슬라미카’를 복속한 적이 있는 세력에 대해 묻고 있고 선지는 이에 대한 예시로 ‘몽골 제국’을 제시한다. 팩스 이슬라미카 중 하나인 아바스 왕조(750~1258)를 보면 부분을 보면, 몽골 제국의 세력 중 하나였던 홀라구 칸국에 의해 멸망했다. 따라서 ㉡에 몽골 제국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이 선지는 옳다.

- ③ ㉢은 메테르니히가 주도했던 체제의 이름과 같은 지명을 가지고 있다.

: 우선 메테르니히가 주도했던 체제의 이름은 ‘빈 체제’이다. 즉 ㉢이 ‘빈’ 인지 확인하면 된다. ‘팩스 오토마나’, 즉 오스만 제국의 술탄 중 하나였던 실레이만 1세 시절 이루어진 빈 포위(제 1차 빈 공방전, 1529)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선지 역시 옳다.

- ④ ㉤의 증조 할아버지는 수니파 이슬람 세계의 지배자로 군림하였다.

: 이전 선지에서도 확인했듯이 ㉤은 실레이만 1세이다. 그리고 그의 증조 할아버지를 따져보기 위해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등의 계보를 교과 내에 한해서 다루어보면

(실레이만 1세, 본인)-(셀림 1세, 부친)-(바예지트 2세, 조부)
-(메흐메트 2세, 증조부)

이므로, ㉤의 증조 할아버지는 곧 메흐메트 2세를 의미한다. ‘수니파 이슬람 세계의 지배자’라는 말은 매우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교과 내에서는 이를 ‘칼리프’와 비슷한 ‘파디샤’로 소개한다. 오스만 제국의 초대 파디샤는 메흐메트 2세가 아닌 셀림 1세이다. 따라서 셀림 1세가 아닌 메흐메트 2세가 ‘수니파 이슬람 세계의 지배자’라고 진술하는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⑤ ㉤의 최대 영토를 확보했던 군주의 증조 할아버지가 ㉤의 군주일 때는, ㉤이 건국될 때의 수도와 다른 곳이 수도였다.

: 우선 ㉤을 먼저 특정하려고 보니 ‘인도’에서 ‘이슬람 왕조 중 가장 넓은 영토를 보유했던 국가’ 라고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이 무굴 제국(1526~1858)임을 간단히 알 수 있다. 이후 선지에서 언급되는 내용 중 ‘㉤의 최대 영토를 확보했던 군주’가 있는데 이는 무굴 제국의 황제 중 남부의 데칸 고원까지 정복하여 제국의 최대 영토를 이루어낸 ‘아우랑제브 황제’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어서 이 군주(아우랑제브)의 증조 할아버지를 따지고 있다. 이전의 선지처럼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등의 계보를 역시 교과 내에서 다루어보면

(아우랑제브, 본인)-(샤자한, 부친)-(자한기르, 조부(교과 외))
-(아크바르, 증조부)

이다. 즉, ‘증조 할아버지’는 ‘아크바르’를 의미한다. 아크바르는 제국의 수도를 아그라로 삼았다. 반면 무굴 제국이 개창될 때의 수도는 델리였다(애초에 국부 바부르가 파니파트 전투를 승리한 장소가 델리 인근이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다.